싱가폴의 인종과 민족문제*

김 성 건

이 논문은 싱가폴에 관한 본인의 첫번째 연구("싱가폴의 종교와 문화")와 이어지는 것으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계 화교가 다수집단을 차지하는 다인종 복합사회인 싱가폴의 인종과 민족문제를 사회학 및 인류학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식민주의 유산과 이민사회의 특질을 가진 신생 도시국가 싱가폴공화국은 건국 초기부터 대부분의 신생 다인종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적 분류'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종'(민족)을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전략 곧, '다인종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이다. 현재 싱가폴에는 고용지위, 교육수준, 직업지위라는 점에서 '민족적 계층'(기타인들-중국인들-인도인들-말레이인들의 순)이 존재하고 있다. 인종(민족)과 종교 사이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싱가폴에서 '민족'은 특히 말레이인의 경우 현재의 종교로부터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비종교적'인 구속 요인이다. 한편, 싱가폴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제1 소수집단인 말레이인 사회는 경제적 불이익, 교육기회의 상대적 결여, 중국인이 다수로서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족적 소수 지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말레이인들의 이해관심을 정당화,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반 수단을 강구한 결과 현재 그들은 대체로 '정치적 동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싱가폴에서 현재까지 커다란 민족간 마찰이 없게된 데는 많은 요인들 중 무엇보다도 강력한 국가기관과 성실한 공무원들이 주도한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Ⅰ. 머리말: 문제의식

최근들어 '인종'(race) 및 '민족'(ethnicity) 문제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이 부흥되고 있다(Clammer, 1982: 127). 그런데,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ethnicity'의 개념 그 자체는 물론 이 개념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복합성이 많은 연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로, 보다 중요한 이유로서,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근대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지배하게 됨에 따라 사회정치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작성되었음.

적 측면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민족과 관련된 제반 요인이 오히려 일반의 예상을 깨고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계속 더해가고 있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실제로, '민족적 긴장'(ethnic tensions)은 오늘날 이른바 제3세계의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rown, 1989: 47). 그래서, 1945년 부터 1989년까지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현저하게 돌출된 227개의 '민족공동체적 집단'(communal groups)을 경험적으로 면밀히 비교 분석한 한 논문(Gurr, 1993)은 1950년대 이래 대부분의 세계 지역에서 '민족공동체적 갈등' 특히 '반란'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중반에 자리잡은 오늘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민족공동체적 갈등이 실제로 증대하고 있는데는 다음의 세가지 일반적 요인을 중시할 수 있다고 본다(Gurr, 1993: 190). 첫째로, 구 소련, 유고슬라비아 및 이디오피아 국가 등이 얼마전 민족공동체적 경계를 따라 각기 해체된 결과 나타난 후속 국가들 속에서 새롭게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집단 속에 불안이 증폭되게 되었고, 이는 또한 세계 전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소수민족주의자들'(ethnonationalists)로 하여금 그들의 자치 혹은 독립을 전보다 더 한층 추구하게 하였다. 둘째로, 최근 제3세계와 제2세계로부터 이웃 국가 혹은 제1세계로 유입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난민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본래 태어난 사회를 떠나 낯선 사회 속에 새롭게 자리잡게된 이들은 해당 사회의 주류(主流) 구성원들과는 민족, 문화, 그리고 종종 종교 등이 다른 '새로운 소수민족'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셋째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강하게 지원한 '민주화'의 과정은 1980년대에도 그랬듯이 전 세계의 이른바 '복합사회'(plural societies, 다인종국가)에서 역설적으로 민족공동체적 저항과 반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특히 최근 탈냉전시대가 갖다준 한층 강렬한 '국제화'의 상황에서 포스트 모던적 담론의 유행과 함께 나란히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문화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민족 의식(意識)의 부흥'(Smith, 1981; Robertson, 1992)이다.

영국 식민주의의 유산과 이민사회의 특질을 가진 신생도시국가인 싱가폴공화국은 '동화(同化)정책'을 추구한 대부분의 신생 다(多)인종국가들과는 달리 1965년 건국 초기부터 '사회적 분류'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ethnicity'(민족)를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Clammer, 1985a: 141-142). 따라서 이른바 '싱가폴 실험'은 복합사회의 민족관계를 취급하는데 하나의 가능한 모델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Clammer, 1985a: 154). 일반적으로, '민족적 다양성'(ethnic diversity)의 요인은 국가와 소수민족 사이의 관계는 물론 국가의 통합에도 영향을 주는 민족공동체적 긴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뚜렷한 요인이다(Lee, 1983: 213).

그런데 연구자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이민을 배제하는 것, 인종적으로 다른 인구집단 구성원들을 서로 격리하는 것, '문화의 상반성' 개념을 지지하는 것, 또한 그같은 문화가 서로 섞일 때 상호 부정적이며 파괴적 결과가 나타날 것을 지지하는 정치적 주장 등 이른바 '새로운 인종주의'(new racialism)(Barker, 1981; Baliba, 1991)가 계속적으로 돌출되고 있는 추세(Mason, 1994: 849)를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의 싱가폴이 현재까지는 '새로운 인종주의'가 대체로 성공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보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싱가폴 실험'의 대표적 지도자로 볼 수 있는 리관유(李光耀) 전(前) 수상은 '문화'와 '생물학' 사이의 관련을 강조하는 점에서 "인간의 유전자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인종주의'의 중요한 기수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관유 전 수상은 1994년 *Foreign Affairs*의 편집인과의 인터뷰("Culture is Destiny")에서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전망에 대한 최근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결론은 미국 문화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같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같지 않다. 유전자와 역사는 만난다"(Zakaria, 1994: 117)고 말하면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과 동아시아의 몽고 인종에 속하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계통에서 나왔지만, 오랜 역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두 집단은 그들의 두개골의 모양 같은 것 등은 유사하지만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신경계의 발달이라든지 문화적 가치 등은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인종과 그들의 문화를 강조하는 리관유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지배한 싱가폴에서는 근대화의 결과로서 한편으로는 싱가폴 국가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충성에 관해서는 국민들 가운데 다소 보편적인 인식이 존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경계'(ethnic boundaries)의 중요성은 여전히 쇠퇴하지 않고 있다(김성건, 1994: 31). 그래서 싱가폴에 우연히 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이 사회에서 '인종'이 사람들 속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토픽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Siddique, 1990: 39). 다른 말로, "싱가폴인들은 인종을 현실적으로 뚜렷하며 객관적인 양상을 갖는 것으로서 여전히 믿고 있다"(Clammer, 1982: 138). 결국, 싱가폴인들은 매우 인종을 의식해서 인종을 계급, 나이 또는 교육적 성취 보다 위에 놓고 있다(Benjamin, 1976). 이것은 1954년 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그들의 신분증에 '인종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같은 관행은 한편으로는 싱가폴 정부의 공식적 '다인종주의'(multiracialism)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싱가폴인들은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들을 '고정관념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싱가폴 사람들에게 그(또는 그녀)가 어떤 특정 문화를 갖기 위해서 하나의 'ethnicity'를 갖는 것을 요구하는 싱가폴의 정책은 교육 및 언어 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싱가폴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패라독스를 초래하였다. 곧, '다인종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문화정책의 논리는 한편으로는 복합인종사회의 종합 즉, 독특하게 싱가폴적인 문화 — 네개의 공식적인 문화, 곧 중국, 말레이, 인도, 유럽 혹은 유라시언의 문화들을 각기 조금씩 떼어 결합한 것 — 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다인종주의'는 개인들을 실제로 예전보다 더 그들 자신의 인종집단과 그것의 문화에 대하여 '동일시'하도록 작용을 하였다. 그로부터 오늘날 싱가폴에서 어떤 이의 민족은 본질적으로 '문화적'이기 보단 '인종적'(특히 중국인에게)이며, 또한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인 것'(primordial)이다(Clammer, 1982: 128).

이상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고서, 1965년 독립하여 3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싱가폴 국가의 '다인종주의' 정책이 낳은 복합적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작업은 이론적 및 경험적 차원에서 인종(민족)관계 연구에 상당한 현재적 의의를 갖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계 화교(華僑)가 다수집단을 차지하는 다인종 복합사회인 싱가폴의 인종과 민족문제를 사회학 및 인류학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밝혀보는데 있다. 아울러, 이에 더하여,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경우와는 달리 싱가폴에서는 대표적 소수집단인 말레이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적게 이루어진 것을 주목하면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본 연구의 내용에 일정 부분 포함시켜 가능한 한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제화의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과 교역량이 증대하고 있는 싱가폴의 인종과 민족문제를 분석한 본 연구는 현재 싱가폴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단히 필요로하는 싱가폴 현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정부가 동남아 후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유입하는데 따른 갖가지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면서도 산업현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노동자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편, 다인종주의의 '싱가폴 실험'을 평가하는 본 논문은 '한국병'으로서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 가는데 긴요한 사회문화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인종과 민족

1. 인종과 민족에 관한 개념상의 쟁점

'인종'(race)이란 단어가 갖는 상당할 정도의 논쟁적 속성으로 인해서 사회이론에서 이 '인종'이란 말의 지위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Brah, 1994: 806). 그래서 한 예로서, 로버트 마일즈(Robert Miles)(1982: 32) 같은 학자는 '인종관계'(race relations)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회학자들(예: John Rex, Michael Banton 등)은 '인종'이란 범주에 대하여 '과학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물상화'(reification)의 오류를 빚게되어 결국 '잘못된 허위'의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로부터 마일즈는 사회과학자에게 적합한 연구대상은 '인종'이 아니라 그 대신 '인종차별주의'(racism)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족'(ethnicity)의 개념도 사회이론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사회학 백과사전〉(Encyclopedia of Sociology)(1992)에 실린 'ethnicity'에 관한 글을 보면, 리챠드 알바(Richard Alba)는 "최근들어 '민족'의 정의에서 문화적 요소를 덜 강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민족에 관한 이같은 정의상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언어, 종교, 음식, 민습, 음악 및 거주 형태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중요하다는데는 학자들 간에 일반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서구 사상과 정치에서 '인종'이란 개념의 역사는 — 특히, 19세기에 서구사회에서 출현한 '인종'이란 이념이 당시 활개를 치던 '새로운 사회적 다윈주의' 이론과 여타의 담론과 일치한 '위계서열적으로 조직화된 인종적 유형'의 관념과 결합된 것 — 이 인종이란 말을 계속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인간의 체질적(표현형적) 차이란 실제로 이미 주어진 생물학적 유형의 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강화(强化)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Brah, 1994: 806). 이는 다른 말로, 한 사회에서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교설의 유산이 일단 자리잡게 되고 정기적으로 이런 주장이 동원될 경우, '인종'에 관한 어떤 담론이 지시하는 대상물이 '인종적 유형'이 지시하는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조차도 문제가 되는 그 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신임된 이론에 대해서 '신용'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다 '사회적 인종'(social races)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며 '인종'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인종을 식별하는 사회는 언제나 '인종차별주의' 사회"(van den Berghe, 1984: 218)라고 본다. 이는 사람들 특히 지배적 인종집

단의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는 체질적인 표현형을 지적, 도덕적, 행태적 특징과 연관되었다고 믿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로써 '인종'과 '인종차별주의'는 나란히 함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종'과 '인종관계' 간의 관련에 대한 최근의 논의중 양자 간의 연관을 부정하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같은 입장은 앞에서 주목한 '인종'과 '인종차별주의' 사이에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미묘한 입장을 대표하는 플로야 안티아스(Floya Anthias: 1990, 1992)는 인종, 민족, 계급 및 인종차별주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녀의 주장을 간추리면 다음의 세가지 서로 관련된 명제로 정리해볼 수 있다(Mason, 1994: 846): (1) 사회학적 인종 개념을 보지(保持)하는 것은 필요하다. (2)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인종의 관념은 인종차별주의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인종차별주의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자극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이같은 안티아스의 주장 중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인종'은 중요하다는 그녀의 주장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종과 인종차별주의 양자 사이의 관련을 부정하는 그녀의 입장은 최근에 일각에서 논쟁의 토픽으로 부상한 보수 정치권의 주장과도 연관된 이른바 '새로운 인종주의'에 대해 그 나름의 '정당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종 개념의 '사회적 의미'는 생물의 체질 및 표현형에 기초한 범주로 인간들을 나누는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같은 카테고리를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성격 및 능력 등과 연관시키는데 존재한다(Mason, 1994: 850).

다음으로, '인종'과 '민족'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race'란 말 보다 뒤늦게 나타난 'ethnicity'란 용어가 본래 그리스어의 '이방인 혹은 이교도'(heathen, pagan)를 뜻하는 'ethnos'의 형용사인 'ethnikos'로부터 나왔음을 주목해야 한다(Cashmore, 1984: 85).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the Other) 또는 다른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ethnic'은 공통된 기원(origins)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결속과 일치를 갖고 있는 한 집단을 말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집단'이란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어떤 인구집단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듯 독특한 박탈을 공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한데 뭉쳐진 사람들에 의한 '의식적' 집합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ethnic'이란 용어는 지배적인 영국계 혈통 집단과 대조되는 유대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및 기타 다른 유럽계 민족들을 점잖게 일컫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 사실이다(Brah, 1994: 810).

따라서 '인종' 이란 단어 대신에 '민족 집단'을 쓰는 것은 양자를 기본적으로 혼동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종'과 '민족' 양자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자는 종종 강하게 중복되기 일쑤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회에서 특정 '인종'이라고 명명된 집단은 종종 그 사회의 주요한 영역에서 쫓겨나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박탈을 참도록 강요되는데 그같은 상황이야말로 특정 민족집단의 성장을 유발하는 조건이다(Cashmore, 1984: 86).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지구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인종 및 민족갈등에 자극되어 '민족'과 민족주의 및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등에 대한 관계가 사회분석에서 중요한 관심사로서 부상하고 있다(Brah, 1994: 810).

앞에서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ethnicity'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학계에서는 1953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만(David Riesman)이 처음으로 이 말을 쓴 뒤 지난 수십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동화주의' 관점은 'ethnicity'의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였고 이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의해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았다(대표적 예: Park, 1950). 그러나 이런 관점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민족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불안의 증폭으로 인해서 거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대신 동화주의 관점에 반대하여 'ethnicity'의 '정치화된 형태'를 강조하는 관점이 대두되었는데, 이 관점은 민족적 운동을 근대화 과정 그 자체의 결과로 간주하였다(대표적 예: Deutsch, 1966; Smith, 1981). 이후 이 두 입장은 각기 '낡은' 민족과 '새로운' 민족을 강조하는 것, 또는 'ethnicity'의 '문화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각기 강조하는 것, 혹은 'ethnicity'의 '자연적' 속성과 '만들어지는' 속성을 각기 강조하는 것 등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ethnicity'를 '근본적인 결속'으로 개념화하는 '본질주의자들'(대표적 예: Geertz, 1967; Shils, 1957)과 다른 한편으로 'ethnicity'를 '유사 이익집단'으로 개념화하는 '도구주의자들'(대표적 예: Patterson, 1975) 사이의 논쟁이다. 그런데, 이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ethnicity'의 핵심으로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문화, 규범, 믿음 및 전통'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며 반면에 '구조적' 요소들은 보통 주요하지 않은 것이며 관계가 크지 않은 부수적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으로서, 한 특정의 시점에서 특정 민족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정체성'(正體性)을 '능동적'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적' '사회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양쪽 방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민족적 표현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데, 어떤 특수한 표현 양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보다 큰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게 된다(Kurien, 1994: 389).

그런데, '민족'의 내용은 공통된 문화적 전통 및 실천으로 구성되는 반면, 집단의

사회적 위상, 계급 지위, 직업 유형, 교육적 성취, 그리고 가족 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 성격의 일부 혹은 전체가 '민족'의 중심적 부분이다. 다른 말로, '민족'은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요인 속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낡은' 민족과 '새로운' 민족 사이에 구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ethnicity'의 '근본성'과 '도구성'은 민족의 유지와 재생이 보여주는 역동적 과정에서 두가지 양태 또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다(Kurien, 1994: 390).

끝으로, 문화적 변동을 한 사회에서 계급과 권력의 배치 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Fox, 1985)을 받아들이게 되면, '민족'도 당연히 '변화하는 것' '항상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어떤 민족의 존재는 고정되어 있거나 정태적인 실체가 아니다. 민족의 재구성은 종종 변화하는 외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데, 특히 식민주의와 같이 전체로서 사회 속에 주요한 구조적 변동이 있을 때 초래될 수 있다.

2. 인종 및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싱가폴대학의 정치학자 데이빗 브라운(David Brown, 1989)은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의 '민족적 긴장'을 주목하면서 제3세계에서 민족의식의 형성 및 갈등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1) '복합사회' 모델(the 'plural society' model) (2) '후원자-고객' 모델(the 'clientelist' model) (3) '조합주의' 모델(the 'corporatist' model).

'민족적 공동체주의'(ethnic communalism)를 '정치화'(政治化)시키는 상황적 요인들 중 '국가의 성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브라운 교수는 앞의 세가지 모델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이 '복합사회' 모델이며 이것의 중요한 예로서 버어마를 지적한다(Brown, 1989: 49-51). 만약 한 사회가 서로 다르며 상충하는 가치와 구조를 가진 여러 개로 구별되는 민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사회는 하나의 특정 민족 집단이 다른 민족 집단들을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결합될 수 있다. 이 때 국가는 그같은 지배의 도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多)민족사회에서 지배적인 민족집단이 권력과 무력(武力)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화주의적인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포함하게 되기 쉽다. 결국 '복합사회' 모델은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특정의 민족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자리가 박탈되거나 제거된 소수집단의 엘리트는 자신이 소속한 민족적 공동체주의에 호소하기 쉽다.

민족 집단을 사회의 구성 단위로 보고 국가 권력의 사용자로서 보는 '복합사회' 모델과 달리, '후원자-고객' 모델은 개인 후원자(귀족)들이 고객망(일반 국민)의 지도자들로서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Brown, 1989: 51-56). 196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타난 제3세계 많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은 정치적 관계를 '개인화' 한 것에 처음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브라운은 이 '후원자-고객' 모델의 중요한 예로서 민족 보다는 종교와 문화적 라인을 따라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인도네시아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운에 따르면, '조합주의' 모델은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집단들로 부터 높은 정도의 '자율성' 을 갖고 있고, 또한 국가를 '유기체적 공동체' 로 보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목표를 위해 힘을 쏟는 '기술관료적 엘리트' 에 의해서 국가는 지배된다(Brown, 1989: 56-60). 이런 사회에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하위국가적 특정민족에 대한 충성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하고 억압한다. 그렇지만 이 '조합주의' 모델은 '복합사회' 모델 처럼 '문화적 동화' 를 강조하지 않고 그 대신 각 민족의 특성은 그것이 '비정치화' 된 형태 즉,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한 인정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한다. 여기서 브라운은 리관유 수상이 이끈 인민행동당(PAP)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관료적 국가로 종종 성격지워지는 싱가폴이 조합주의적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주지하듯이, 싱가폴 정부는 "싱가폴은 '인종적으로 색깔을 구별하지 않는' 실력주의 사회"(Brown, 1989: 59)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족 갈등의 관리문제' 에 대한 권위자인 테드 거(Ted Robert Gurr) 교수는 "왜 소수집단은 반란하는가?"(1993)라는 논문에서 '민족 공동체적 집단' 을 "인정된 국가 또는 제도화된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집단"(161)으로 정의한 뒤, 이들을 다음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민족계급 — 보통 이민자 혹은 노예로부터 계통을 잇게 된 민족적 소수집단으로서 이들은 특정의 경제적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스트 같은 천한 직위에 종사하고 있다. (2) 소수민족주의자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이며, 지역적으로 집중된 사람들로서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독립하였던 이들은 근대 국가체제 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개선시키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토착민 —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의 독립문제에 대해서 소수민족주의자들 보다 한층 더 관심을 가지는 반면, 문화적으로는 현재 그들이 속한 국가나 식민정부의 중심으로부터 보다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4) 경쟁적 민족문화집단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로 쟁투하는 민족문화적 집단의 이질적인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에 있는 권력은 집단 간의 연합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보, 호선(互選) 및 억압의 혼합을 사용하는 우세한 집단에 의해서 지배된다. (5) 투쟁적 종파 — 이슬람교의 종교

적 믿음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 '정치화'된 소수민족들로서 이들은 비이슬람 종교 전통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회교 소수민족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인종으로 구성되었으나 독립이후 현재까지 인종간 갈등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싱가폴의 경우에 대해서 테드 거교수는 현실로서 말레이인들이 '민족 공동체적 집단'으로서 존재한다고 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앞에서 소개한 다섯가지 범주 중 일차적으로는 '소수민족주의자'이며 이차적으로는 '투쟁적 종파'에 해당한다고 분류하고 있다(Gurr, 1993: 195).

테드 거교수는 또한 민족간 갈등분석에서 현재 경쟁상태인 이론적 관점은 두가지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집단 동원'을 각기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민족적 문화'의 성격을 연구하는 분야의 경우 경쟁상태인 두 관점은 '본질주의자'와 '도구주의자'의 양입장이라고 적시한 뒤, '집단 정체성'과 '불만' 양 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Gurr, 1993: 167),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종합'을 지향하는 이같은 관점을 본 연구자는 수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종 및 민족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연구자는 소수민족에 대한 '비(非)분리정책'이 갖는 '복합적' 결과(긍정적 결과와 또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측면)를 일반론적 관점에서 주목한 윌리엄 사프란(William Safran, 1994)의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비분리정책의 이같은 대조적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1)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정도 (2) 소수민족공동체의 뿌리와 통합(결속) (3) 소수민족 엘리트의 성격과 속성 (4) 소수민족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참여 정도 (5) 국가정책 수립자들의 성실성.

Ⅲ. 싱가폴의 근대 정치사(政治史)에 있어서 인종 및 민족관계

오늘날 '싱가폴의 건설자'로 불려지고 있는 영국인 래플즈 경(Sir Stamford Raffles)이 동인도회사의 총독 대리로서 동남아시아의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무인도에 가까운 싱가폴 섬에 1819년 처음 도착한 뒤, 약 140여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쳐 말레이시아로부터 1965년 독립하여 건국된 다인종 이민사회 싱가폴 공화국에 있어서 '인종간 결속'(inter-racial solidarity)은 당시의 건국 초기 상황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적인 요소였다(유인선, 1993: 39; 김성건, 1995: 4). 싱가폴을 포함하여 말레이반도 전역에서 오랫동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영국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결과 여러 민족집단 간의 관계가 왜곡됨으로써 인종간 사회적 통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싱가

폴이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던 1960년대 후반 당시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싱가폴 주민을 싱가폴인으로 만드는 문제' 즉 '국가 건설' (nation-building)이었다. 다인종 이민사회의 특질을 가진 오늘의 싱가폴공화국의 인종 및 민족관계의 배경을 이해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독립되기 전 거의 150년 가깝게 영국의 식민지로서 경험한 독특한 사회변동의 역사, 특히 싱가폴에서 영국 식민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펼친 인종 및 민족관계에 대한 '분할-지배' (divide and rule) 정책의 유산과 그리고 그 뒤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2년-45년 까지 싱가폴을 일시 지배한 일본의 싱가폴 내 여러 민족에 대한 차등 정책,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근대 싱가폴 역사 중에서는 1965년 독립 전후 몇년 동안의 정치적 격동기에 나타난 중국인과 말레이인들 간의 민족 갈등 사건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래플즈 경이 싱가폴에 19세기 초 도착하여 활약한 배경에는 당시 동남아시아 특히 말레이반도와 오늘날 인도네시아로 불리는 지역에서 영국과 네델란드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사실이 놓여있다(Clammer, 1987: 215). 구체적으로, 영국은 말라카(Malacca)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기지를 찾고 있었는데, 싱가폴은 무역과 전쟁 양면에서 고도로 전략적인 위치와 함께 동시에 뛰어난 천연항으로서 그 쓸모가 인정되어 영국 식민세력의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선택되었다. 래플즈 경이 처음 도착했을 당시 싱가폴 섬에는 인구가 아주 적어서 겨우 150여명 만이 살고 있었으며, 그 중 120명 가량은 말레이인이었고 나머지는 중국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싱가폴섬에 영국기가 꽂히고 난 뒤에 사정은 급속도로 달라졌다. 즉, 싱가폴 보다 15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말레이반도 서부 연안의 말라카에서 적어도 15세기 이래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자리잡았던 중국인들이 즉각적으로 새롭게 열린 기회를 찾아 싱가폴로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말라카 중국인들과 싱가폴에 본래 있던 원주민 말레이인들만 갖고서는 영국 주도의 싱가폴 항 개발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은 크게 부족하였다. 그래서 싱가폴 식민당국은 문호를 개방하여 노동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주로 중국 남부로 부터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말레이반도 일대에서 당시 계속 그 수가 늘어났던 중국인들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인도의 남부로 부터 타밀인(Tamil)들을 상당한 규모로 받아들였다(Chew, 1991: 360). 영국 식민당국에게 중국인들의 노동은 '우월한' 것으로서 인정되어 이들은 특별히 선호되었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근면, 검약 및 자신들의 치안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 등을 영국 식민세력이 인정한 결과였다(Abraham, 1983: 23). 아울러 식민당국의 관점에서는 이미 백인 식민통치를 직접 경험한 바 있던 인도인, 특히 타밀인들은 그들의 유순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품팔이 인부(coolie) 사이에 쉽게 종속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영국 식민당국은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자바인, 버어마인, 말레이인 등)은 노동자로서 체질적 결함을 가진 것은 물론 이들을 통제하는데는 이들의 문화 및 세계관 등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즉, 말레이인으로 대표되는 원주민들은 말레이반도에서 영국의 일차적 관심이었던 '자본 축적'에 대해서 협력하는데 별로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Chiew, 1991: 179).

실제로, 다른 민족집단들 사이에서 각기 기대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Abraham, 1983: 25). 그 보기로서, '단순히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자가 되는 것의 이미지'가 바로 인도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중국인 이민자들의 성격 사이에 차이로 드러났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비록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제한적인 기회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였다(Loh, 1969: 151). 이런 측면에서 인도인 이민자들은 주로 유럽인들의 관심에 맞게 노동자가 되는 것에 그리고 또한 식민정부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인도인 이민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은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그런 자세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인도인들을 경멸하게 만들었다(Abraham, 1983: 26). 싱가폴에 대규모 노동이민이 유입되도록 영향을 준 유인 요인은 당시 말레이반도에서 주석 산업과 방대한 규모의 고무 농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1909년부터 1940년까지 무려 1,600만 가량의 중국인과 인도인이 말레이반도에 도착하였다(Sandhu, 1969: 23). 그런데 싱가폴을 포함하여 말레이반도에 들어온 이들 이민의 주요한 의미는 이미 1921년이 되면 중국인과 인도인을 합친 인구(49.49%)가 말레이인(48.8%)보다 약간 더 많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아, 이민이 그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바로 자원개발산업과 농장산업에 자본이 투자되었던 것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이런 개발은 격리된 지역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같은 유형의 개발은 원주민 농업자원을 고갈시켰고 또한 전체로서 말레이사회의 구조에 '파괴적' 효과를 갖다주었다(Abraham, 1983: 22). 결국, 한편으로 경제적 성장은 이루어졌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경제적 성장의 사회적 결과는 소농(peasantry)의 복지, 이민노동대중, 그리고 특히 조화로운 인종 및 민족관계에는 '유해한' 것이었다.

참고로, 1871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센서스에 의하면, 싱가폴의 인구는 97,111명으로서 그중 54,572명이 중국인이고, 26,148명이 말레이인이며, 11,501명이 인도인이며, 2,000명 가량이 백인이며, 그 외에 약간의 아랍인, 유대인, 버어마인 및 기타 소수민족들이 존재하였다(Clammer, 1987: 215). 이 때로부터 여러 민족 집단들 가운데서 때때로 약간의 변화가 있기도 하였지만, 일반적 패턴 즉, 가장 다수집단은 중국인, 제법 상당한 수의 소수집단으로서 말레이인, 다음으로 제2의 소수집단으로서 인도인, 그리고 유럽인 또는 혼혈인 및 기타 민족집단으로 분포된 것은 거의 변화되지 않은 채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계 이민사회로부터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도시국가 싱가폴의 민족 구성은 1992년 현재 중국인이 77.6퍼센트, 말레이인이 14.2퍼센트, 그리고 인도인이 7.1퍼센트를 차지하며 이들 외에 유럽계의 유라시언으로 대표되는 인종이 1.1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1993: Appendix 1).

싱가폴에 중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환영했던 영국 식민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인종을 각기 그들의 거주 공동체 속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좋아했다(Clammer, 1982: 132). 이같은 정책은 근대 싱가폴의 많은 지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 인종은 그 자체의 수령(추장, headmen)을 통해서 통치되었다. 이로써 민족 분류의 패턴과 민족간 분리는 싱가폴의 역사에서 매우 초기부터 뿌리내려 줄곧 발전되었다. 식민정책은 각기 민족 집단이 그 자체의 관습, 문화 및 종교, 그리고 또한 상당할 정도로 그 자체의 경제를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로부터 만들어진 '민족간 카테고리'는 식민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의 백인통치국가가 피식민지인들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었다(Lian, 1992: 98). 한 예로서, 영국인들은 식민지 말레이반도에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의 역할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Abraham, 1983: 26). 즉, 중국인들은 가게 주인, 청부업자, 자본가 및 수익을 올리는 농장 소유자로서 없어서는 아니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인도 출신 타밀인들은 농장 노동자, 가축치는 사람, 세탁업자, 이발사 등으로서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이며 농업을 주로 했던 말레이인들은 그들의 말레이 귀족에 대한 충성을 북돋워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듯 '민족'에 대한 당시 영국인들의 관점은 그 때 동남아를 지배한 여타 유럽 식민세력의 관점과 크게 차이가 없이 '귀속적'(ascriptive)인 것 즉,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이란 사람이 출생할 때 주어지는 고착된 것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로부터 식민지 싱가폴은 원주민(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및 유럽인들이 동일한 정치적 단위 내에 존재하지만 각기 서로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떨어져 사는 전형적인 '복합사회'('plural society', Furnivall, 1944)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가 비유럽인들의 식민지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제공하였다. 다른 말로, '귀속적' 민족의 이념이 여러 민족 공동체를 쉽게 통치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쓰여졌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영국 식민정부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하여 각기 특정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중재자'의 역할을 획득하였다(Abraham, 1983: 28). 또한, 식민지 말레이반도에서 정치적 안정을 정말로 위협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말레이인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판단한 식민정부의 정책은 이민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와 함께 말레이 지배계급을 통해서 말레이인들을 '진정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국 식민지 치하의 싱가폴에

서 19세기 후반에 활발했던 노예무역이 주로 그곳에 있던 부유한 아랍계 상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Stauth, 1992). 이들 회교 엘리트들은 당시에 영국 식민당국과 무슬림 공동체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였다(Lee, 1991: 269). 이에 더하여, 영국인들은 비말레이인들 앞에서는 말레이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인도인들 앞에서는 중국인들을 업신여김으로써 연루된 여러 민족집단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자와 중재자로서 여겨졌다. 이렇듯 영국 식민당국이 온갖 교묘한 수단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 식민지 싱가폴에서 토착민인 말레이인들과 그리고 후에 이민온 여러 민족집단들 양자는 식민정부에 쉽게 종속되었다(Abraham, 1983: 28).

그런데, 이같은 영국의 식민정책의 결과로 생성된 민족간 분업의 체제를 1965년에 새롭게 독립한 싱가폴 정부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부터 식민지 시대 동안에 생성된 '민족간 경계'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싱가폴에서 '민족의 제도화'(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ity) 현상을 주목하는 클레머(Clammer, 1982; 1985a)는 영국 식민정부가 만든 민족간 분류 패턴이 싱가폴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엄격한 '민족간 경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적절히 주장한 바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민족집단에 관한 영국 식민정부의 인식은 당시 풍미했던 '인종'(race)에 관한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Lian, 1992: 97). 그래서 식민지 치하에서 인종의 분류는 하나의 '위계'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떠받쳐준 여러 이념중 하나였던 '사회적 진화론'이 현 싱가폴 지도자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사실이다(Lian, 1992: 104). 인간 사회들 사이에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사회적 진화론의 이념은 싱가폴인들에게 양보해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시장에서 경쟁하여 승리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것을 훈계하는데 적절한 이데올로기적 기초로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싱가폴의 인종 및 민족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2년 2월 일본 육군에 의해 함락된 싱가폴은 혹독한 일본군정의 통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대에 싱가폴의 여러 주요 민족집단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 정책은 이들 여러 민족 집단의 정치적 관점과 상호관계에 그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Thio, 1991: 95-102; 김성건, 1995: 5-6). 우선 싱가폴 군정을 담당했던 제25군단은 그들이 중일전쟁에 참여한 경험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에 대하여 깊은 증오를 가졌고, 그로부터 싱가폴의 중국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심지어는 대량학살까지 자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일운동을 펼쳤던 중국인들과 달리 말레이인들은 아시아인들의 열망을 존중한다고 표방하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세력의 지배 밑에서

말레이 인종의 장래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본측의 정치적 선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위해 싱가폴 및 수마트라에 있는 다른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협동을 증진시키려 의도했던 일본군정은 당연히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그와 함께 일본군정은 보수적인 말레이인들의 전통주의적 관습과 가치를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려 하였고, 근대교육을 위해 특수한 자치학교에 말레이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 결과 비록 일본의 통치는 짧았지만, 이 3년 동안 이룩된 여러 측면의 발전은 말레이인들의 공동체 지향의식을 높혀주었고, 또한 이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다준 것이 사실이다.

인도인들도 말레이인들 처럼 일본에 의해서 대체로 우호적으로 취급되었다. 북부 말레이반도에 주둔했던 인도 군대들이 지녔던 정보망을 이용하고자 했던 일본은 정치적 선전을 통해 일본이 그당시 인도에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부터 일본군은 본국의 중앙사령부로부터 말레이반도에서 인도사람의 재산, 인명 및 명예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영국군대와 관리가 떠난 뒤 일본점령기에 유라시언 특히 그들 중 당시 유럽인 직계 조상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 만큼이나 일본군정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불신과 함께 커다란 시련을 맛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폴은 영국과 일본이 지배한 식민정책의 유산으로서 여러 주요 민족 집단 간에 결속 보다는 분열이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뒤 뚜렷한 정치적 갈등이 거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이한 사실이다(Clammer, 1982: 136). 여기에는 주로 신생 싱가폴공화국의 강력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권력 및 통제를 성공적으로 독점한 것과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제도화된 다민족모델'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싱가폴의 독립 전후 즉 근대정치사를 눈여겨 보면 한 때 '민족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말레이시아가 수립되었던 1963년까지 싱가폴은 말레이반도의 여타 대부분의 지역과는 분리된 영국여왕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말라야적 정체성'(a 'Malayan identity')이 한때 강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Chew, 1991: 357-368). 즉, 1946년-63년 까지 모든 싱가폴의 정당(말레이민주연합으로부터 인민행동당까지)은 싱가폴 섬이 말레이 후배지(後背地)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말레이 연방과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이같이 싱가폴에서 '말라야적 정체성'이 증대하게 된 데에는 당시 1947년 독립된 인도로부터 싱가폴로 이민자들이 격감한 것과 또한 1949년 공산화가 된 중국으로부터도 이민자들이 대폭 감소한 것이 그 강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레

이인들은 1945년 네델란드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와는 스스로 일정한 거리를 갖고자 원했고, 또한 동시에 1948년 이후 영국 통치에 대항했던 말레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그대신 그들은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이 이끄는 연합당이 추진한 입헌운동을 선호하였다. 이 운동은 성공하여 결국 1957년 영국으로부터 말라야 연방(the Federation of Malalya)이 독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싱가폴에서 입헌의 진전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소요로 인해서 늦추어졌고, 마침내 1959년에 가서야 비로소 영국이 싱가폴 사람들에 의한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일단락을 보았다.

1959년 6월에 처음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인민행동당(PAP) 정부는 그 이후 계속해서 말라야 연방과 한층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자 하였고, 그래서 말레이, 싱가폴 및 영국의 보르네오 영토 사이에 보다 가까운 정치경제적 협동을 하자고한 압둘 라만의 1961년 5월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Chew, 1991: 362). 그런데, 싱가폴이 반(反)공산주의 말라야 연방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PAP 내에 분열이 촉진되어 결국 PAP의 좌파 지지자들은 PAP를 떨어져나와서 사회주의전선(the Barisan Sosialis)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리관유 수상아래 PAP의 온건한 지도력은 1962년 9월의 국민투표에서 승리를 한 데에서 그리고 이듬해 말라야 연방과 병합한 것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른바 '말라야 연방과의 합동을 위한 싸움'에서 쉽게 이겼다(Turnbull, 1989: 270-286).

싱가폴 내에 있는 친공산주의 요소에 대항하여 말라야 연방과의 합병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PAP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에 대항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말라야 연방 속에 있는 '민족공동체주의자'(communalist) 세력과 싸우게 되었다(Chew, 1991: 363).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싱가폴 국가와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대가 만족되지 못하자 이 새로운 정치체제에 소속감을 갖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다른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당시 도시국가 싱가폴의 역동적인 지도 세력은 보다 더 보수적이며 말레이인이 지배한 중앙정부의 지도부와 계속 갈등이 늘어났다. 이런 맥락에서 싱가폴에서 1964년 7월과 9월에 민족공동체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싱가폴의 지도자들과 연방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는 깨뜨러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1965년 8월 9일 싱가폴은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민족국가'가 되었다.

1964년의 민족 폭동사태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가 수립되었던 시점인 1963년에 싱가폴에서 말레이 공동체는 전체의 약 14퍼센트를 차지하는 별 문제가 없는 소수민족집단으로서 다수집단인 중국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낙후되었고 무시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다(Chan, 1971: 16-19). 말레이본토와 병합하기 전에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은 단순히 그들이 수적으로나 조직으로나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수립되고 그로부터 본토에 있는 그들의 말레이 형제들이 자신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은 마침내 정치적, 경제적 기회 면에서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몫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특히 싱가폴 말레이 공동체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폭동이 1964년에 두차례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불만'이 주원인이 되어 일어났고, 그 결과 PAP와 연방 정부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어 마침내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폴의 독립을 가져왔다.

1964년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은 신생 싱가폴 정부는 이후 자연적으로 말레이인들의 감정에 대해서매우 민감하게 되었다. 리관유 수상으로 대표되는 PAP의 지도자들이 당시 말레이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밖에 없게 된 여러 이유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싱가폴이 '말레이인들의 바다'(a 'sea of Malay peoples')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사실이다(*The Mirror*, 1965년 10월 9일). 만약에 PAP 정부가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핍박하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여겨지면, 이는 주위에 있는 말레이계 인종주의적 정치인들로 하여금 싱가폴 섬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PAP 지도자들의 머리를 지배하였다. 그래서 당시 많은 본토 말레이인들이 싱가폴 독립 이후 중국인들이 지배한 싱가폴에 있는 말레이인들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한 것에 대해서 리관유 수상은 새로운 싱가폴 공화국의 헌법에 '다인종사회의 이상'(multi-racial ideal)을 맹백히 강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억눌렀다(*The Straits Times*, 1965년 8월 13일). 이후 리관유 수상은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들은 PAP 정부를 여전히 의심하였다(Chan, 1971: 19). 즉, 그들은 PAP가 말레이인들의 불만을 청취하는 민원 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을 추천한 헌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또한 몇가지 기본권을 굳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것 등을 비판하였다. 또한 특히 싱가폴에서 '말레이국민연합'(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이 싱가폴이 아닌 말라야 본토에 대해서 충성을 바친다고 공격받았다. 그래서 1967년 초 UMNO는 그것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등록을 철회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되었다. 여기서 PAP는 UMNO의 평판을 나쁘게 해서 싱가폴 말레이인들의 충성을 얻어내려는 희망 속에서 UMNO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말레이인들은 UMNO에 대한 공격을 말레이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서 받아들였다.

급기야 1966년 7월 중국인과 말레이인들 사이의 충돌을 일으키고 또한 싱가폴 독립 기념일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두개의 말레이 극단주의 지하조직의 음모가 싱가폴 정부 당국에 의해서 발각되었다(*The Straits Times*, 1966년 7월 27일). 이 음모의 주동자들

은 하층 계급의 일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주동자는 선원노조의 총무이며 그 전에는 UMNO 지부의 조직책이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주동자는 기계 수리공으로서 회교 교사였다. 이 두 운동은 아마도 소수 몇사람의 '광신자'에 의한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단히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 싱가폴에서 약간의 불똥이 주요한 '인종적 충돌'을 끌어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Chan, 1971: 19).

Ⅳ. '다인종주의'(multiracialism) 정책

오늘날 싱가폴인들은 스스로 그들의 사회가 '다인종적' 사회 즉, 단일의 정치적/국가적 단위이지만 상당할 정도로 민족적 복합성을 가진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Clammer, 1982: 134). 이것은 독립이후 PAP가 줄곧 강조하면서 시행한 이른바 '다인종주의' 정책이 싱가폴에서 뚜렷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다인종주의' 모델은 싱가폴을 '인스탄트 아시아'(Instant Asia)라고 홍보하고 있는 싱가폴관광진흥청의 선전 책자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싱가폴을 '인스탄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을 싱가폴이라는 작은 섬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민족 모델'을 증진하는 것은 또한 이런 것 보다는 한층 깊은 '구조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는 '다인종주의'로 인해서 '민족'은 전 사회의 통합에 대한 장애물의 하나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통합의 '자원'으로서 여겨진다. 이로써, 싱가폴의 '다인종주의'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한 싱가폴대학의 영국계 사회학자인 벤자민(Benjamin, 1976) 교수가 오래 전에 잘 지적했듯이, 신생국 싱가폴의 상황에서 '민족적 정체성'은 PAP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신생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주조해내고자 하는 해당국가의 정치지도자들과 문화개발 기구는 당연히 국민들의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직업 및 계급집단 구성에 대해서 거의 명백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신생국 싱가폴의 경우가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njamin, 1988: 24-25).

싱가폴은 서로 다른 민족집단들이 그들 간에 커다란 다툼 없이 서로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다른 복합사회의 경우 민족간 갈등이 흔한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그런데 이같은 차이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싱가폴정부가 '다인종주의'에 기초한 덕목을 긍정적으로 신봉한 것과, 또한 '민족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관리한 것을 일단 증시할 수 있다(Clammer, 1985). '다인종주의'란 어떤 복합사회의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인종들의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싱가폴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민족적 차별에 대항하는 힘있는 세력으로서 수십년 동안 대체로 성공적으로 기능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싱가폴에서 '다인종주의'는 '정부가 모든 인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Chan and Evers, 1972). 그런데, 개념으로서 '다인종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이질성' 즉, 인구집단이 서로 분리되었으며 구별되는 '인종들'(races)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Siddique, 1990: 36), 독립 이후 '싱가폴적 다인종주의'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각 인종의 이질적 성격은 덜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및 기타인' 즉, 이른바 'CMIO'(Chinese, Malay, Indian, and Others)로 한층 단순화된 '사분(四分)의 다인종체제'를 지원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65년 독립이래 각 인종과 그것의 모어(母語) 그리고 그것의 문화 사이에 '결합'이 발전되었다(Chan, 1983). 중국인 사회에 있어서 중국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로서 만다린(Mandarin)이 모어로서 정해졌다. 말레이인 사회의 경우 말레이문화는 말레이어를 통해서 보전되었고, 인도인 사회 는 그들 다수가 사용하는 타밀어가 문화적 매개체로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중언어'(bilingual)를 강조하는 학교체제는 인종과 모어 사이의 이같은 관련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립적' 언어인 영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1의 언어로서 가르쳐지고 있고, 만다린, 말레이어, 타밀어 중 하나는 제2의 언어로서 선택되고 있다(Clammer, 1987: 219). 그런데 이처럼 두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는 영어가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서구화 영향을 모어를 통한 아시아적 문화의 뿌리에 접근하는 것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Siddique, 1990: 37).

이로써, CMIO 모델과 싱가폴적 아이덴티티 사이에 연관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CMIO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소속감을 갖고 또한 그 카테고리의 규범에 동조하는 것을 '민족에 기초한 아이덴티티'라고 말한다면, 이런 정체성은 이른바 '싱가폴적 아이덴티티'와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싱가폴적 정체성은 다인종적 CMIO 카테고리의 '싱가폴화'로서 이해될 수 있고, 그로부터 이것은 '싱가폴 중국인', '싱가폴 말레이인', '싱가폴 인도인' 따위의 수많은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곧, 오랫동안 복합사회인 싱가폴에서 민족과 사회적 차이의 분류를 연구한 클레머 교수(Clammer, 1982; 1985a)가 주장하는 '민족의 제도화'의 대표적 보기라고 할 것이다.

CMIO 모델을 통해서 '민족의 제도화'를 추진한 PAP 정부는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1960년에 주택개발청(the Housing and Deveolpment Board, HDB)을 만들어 새로운 주택단지에 건설된 공공주택의 배분 정책을 통해서 '인종 혼합'을 이루고자 하였다(Ooi et al., 1993). 구체적으로, 정부 기관인 HDB의 주택 배분정책은 새롭게 조성한 주택단

지에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가족규모 그리고 청약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배분하되 각 단지 내 입주자들의 민족별 구성이 CMIO 모델에서 대표적 4개 민족집단이 각기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같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HDB는 구도시의 중심 주위에 수많은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새로운 타운'을 만든 결과 싱가폴 전 국민의 무려 약 88퍼센트가 현재 여기에서 새로운 주거를 하게 되었다(Paul, 1992: 8). 이 과정에서 HDB가 본래 의도했던 주요한 사회적 목표로서 식민시대의 유산인 도심지 곳곳에 존재했던 '특정민족 밀집지역'을 파괴하여 이들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거의 달성되었다. 그리하여 일단 한편으로는 인종적 혼합이 증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한 인종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물리적 혼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민족의 그물망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Clammer, 1987: 222). 그래서 1977년에 사회학자 첸(Chen, 1977: 32) 교수는 "새로운 HDB 고층 아파트 같은 환경은 한편으로는 입주자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회적 거리를 더 넓혀준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웃들 간에 상호 지원이라든지 커뮤니티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의 결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에서 가장 사회성이 높은 민족집단은 말레이인들이고 반면 가장 타민족과 교류를 꺼리는 민족은 다수집단으로서 민족적 우월감이 강한 중국인들이라는 사실이다(Ooi et al., 1993: 76). 또한, 인종 간의 진정한 혼합의 중요한 한 지표라 할 수 있는 '민족 간 결혼'(interethnic marriage)의 비율이 PAP의 '다인종주의'와 HDB의 주택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에서 큰 변화없이 거의 항상 3-4퍼센트 밖에 안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서도 싱가폴에서 인종혼합의 수준을 단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Hassan, 1974; Chew and MacDougall, 1977).

그런데, 이같은 인종간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80년대 후반이후 특정 HDB 단지 내에서 '인종 집단의 재집중'(a regrouping of races)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이 70년대에 건설된 공공 아파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동안 경제력이 나아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있는 HDB 아파트를 팔아 고급 민영 아파트나 개인주택 또는 다른 새로운 HDB 단지 내의 더 좋은 아파트를 임의로 구입하고자 원해서 그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을 HDB의 영역 밖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내놓게 되면서부터 초래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인종집단 특히 말레이인들의 재집중 현상의 중요한 이유로서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들 말레이인들은 근거리의 주택단지에 사는 같은 말레이인 가정 간에 탁아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례와 축제 등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등이다(Ooi et al., 1993: 18-19). 1989년 2월 싱가폴 정부는 이같은 '인종 집단의 재집중'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는 사회통합 대신에 그동안 잠복해있던 '인종의식'을 되살아나게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급기야 HDB 근린지역과 HDB 단지에 대하여 '인종적 제한'(racial limits)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에 '인종적 할당'(racial quotas)을 도입한 이 새로운 정책은 한편으로는 말레이인들이 어떤 선거구에서도 '다수'(majority)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도 평가되었다(Paul, 1992: 19). 아뭏든 1989년에 발표된 공동주택관련 정부정책은 전매(resale) 시장이 인종적 불균형을 만들어낸 지역의 경우 그 전매시장에서 아파트 구입 경쟁은 해당지역의 인종적 불균형이 시정될 때까지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iddique, 1990: 3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HDB의 정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인종간 혼합을 지향하는 이 공공주택정책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의 배경으로서 종국에는 '물리적 근접성'이 사회적, 문화적 접촉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공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PAP 핵심 지도층 인사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Clammer, 1987: 222).

다음으로, 싱가폴의 '다인종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1988년에 처음으로 입안되어 실시된 이른바 '집단대표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ies, GRCs)의 설립이다(Paul, 1992: 19). 이것은 의회의 구성이 언제나 확실하게 다인종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같은 제도 하에 1988년 9월 선거에서 13개의 GRCs가 39개의 단일 선거구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나머지 42개의 단일 선거구와 함께 도합 81개 의석이 구성되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이른바 '팀 국회의원'(Team MPs) 즉, 한 팀 세명의 의원들 중 적어도 한명은 말레이인 또는 여타의 소수인종으로 구성되는 팀이 각 GRC를 위해 일하도록 공동으로 선출되었다(Siddique, 1990: 37-38). 이런 조치는 일면 야당의 말레이 유권자들에 대한 인기를 약화시키는 데 쓰여졌다(Paul, 1992: 19). 실제로 1988년의 선거에서 9명의 말레이인들이 이 제도하에서 의회에 선출되었고, 이로써 81명의 전체 의석중 소수민족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싱가폴에서는 1989년 이후 앞에서 지적한 HDB의 '민족적 쿼터' 도입과 나란히 이른바 '선거구개정'(gerrymandering)의 책략이 말레이인들의 정치적 세력을 깨뜨리는 데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한 예로서, 1988년 총선에서 야당이 거의 41퍼센트의 득표를 했지만 81명 총수의 의원들 중 겨우 2명의 야당 의원만이 선출되었다.

한편, 싱가폴의 '다인종주의'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최근들어 공중의 토론주제로 부

각된 것은 바로 다인종적 사회에서 '공통의 가치'이다(김성건, 1994: 13-14). 1988년 9월 선거 바로 뒤에, 당시 제1 부수상이었던 고촉동(吳作棟)이 싱가폴인은 지속적인 번영과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의 '국민적 이데올로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Quah, 1990: 1). 그 뒤 1989년 1월 당시 의회 의장이었던 위킴위(Wee Kim Wee)가 개회 연설에서 다음 4가지 핵심 가치가 국민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 개인 보다 사회를 우위에 놓는 것 (2) 사회의 기본적 구성 단위로서 가족을 강조하는 것 (3) 대립 보다 합의를 통해서 주요한 쟁점을 풀어가는 것 (4) 인종적, 종교적 관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Siddique, 1990: 38). 그런데, 그 이후 수개월 동안의 계속된 토론에서 국민적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모든 인종들과 '문화적'으로 상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되었다. 그로부터 각 인종집단은 이 같은 공통 가치를 그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언어적 유산(전통)의 관점에서 적절히 재해석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리고, 싱가폴 정부가 '다인종주의' 정책에 대해서 나타내 보인 가장 최근의 보기로서, 198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이민정책'을 중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싱가폴 정부는 이 때 앞으로 몇년 동안 25,000명의 홍콩 중국인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몇몇 소수인종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을 때, 당시 고촉동 제1 부수상은 "싱가폴의 인구가 260만, 320만 아니면 또는 400만이 되든 현재의 민족적 균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만일 싱가폴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76퍼센트를 넘게 될 경우, 우리는 말레이인과 인도인 영주권자의 숫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The Straits Times*, 1989년 7월 30일).

이로써, 싱가폴의 다인종적 모델은 '통합주의'나 '동화주의'라기 보다는 '상호작용주의'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Siddique, 1990: 38). 그리하여 다양한 '다인종주의' 정책은 처음 상당기간 동안은 싱가폴인들 속에서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자아냈지만, 최근 몇년 전 부터는 '다인종주의' 정책의 주요한 결과로 나타난 '민족의 제도화'가 사회통합 대신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종적 자각'을 증대시키는데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싱가폴에서 어떤 사람이 제2의 언어를 선택하는데, HDB 아파트를 신청하는데, 정치적 지도자를 뽑는데, 그리고 국민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등에서 '인종'이 명백히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있는 현상은 싱가폴인들은 국외에 나가서는 자신들을 싱가폴인으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국내에서는 자신들을 CMIO의 한 카테고리에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Siddique, 1990: 58).

요약하면, 지난 30년 동안 싱가폴 정부는 (1) '국민 문화,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 문화, 민족 정체성'을 매우 의식적으로 구별하려고 노력하였다. (2) 다인종정책은 서

로 다른 인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같은 인종 구성의 '정치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정부는 결국 민족문화정체성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였다. (4) 그동안의 산업화의 결과로 물질주의적 지향이 지배하게 된 뒤 현재 싱가폴인들 속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복귀가 나타나고 있다(Chua and Kuo, 1991: 27-31). 이 중에서 우선 (2)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예로서, Brown, 1989: 58)은 하위민족집단의 문화에 대한 충성을 비정치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앞으로 그 반대 효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또한 '문화적 발전'에 관한 마지막 (4)항과 관련해서, 싱가폴에서 '다인종주의'라는 공식적 정책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 고정된 정책이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문화적 통합'이 아닌 '문화적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비판(Benjamin, 1976)을 중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싱가폴 정부는 민족문화중 '노동의 문화'라든지 국제시장 질서 속에서 싱가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수적인 가치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민족 문화의 '본질적' 성격이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Chua and Kuo, 1991: 5-10). 이로써, 싱가폴에서는 근대화의 결과로서 한편으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충성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인종주의'의 사회문화정책 속에 어느 정도의 패러독스가 존재하게 되어 결국 '인종적'(민족적) 경계의 중요성은 쇠퇴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Ⅴ. 싱가폴의 사회변동과 인종(민족)문제

1. 인종(민족)과 계급

부카난(Ian Buchanan, 1972)은 싱가폴의 1960년대 자료를 토대로 싱가폴의 고용된 사람들 중 4분의 3이 넘는 사람이 저임금을 받는 육체노동자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싱가폴은 '노동계급사회'라고 규정하였다. 첸(Chen, 1974)은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싱가폴은 '중간계급'의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타나서 70년대에 이르면 이미 싱가폴인들 중 절반 이상이 중간계급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최근 샤론 리(Sharon M. Lee, 1991)는 싱가폴인들 중에서 교육적 성취, 직업의 유형, 소득의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 것과 아울러 그같은 차이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듯이 사람들의 '인종'을 필두로 하여 기타 다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같은 관찰된 계급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싱가폴사회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래의 사회계급구조를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싱가폴사회가 보여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였다(Sharon M. Lee, 1991: 35-36).

이같은 관점을 따라, 다음에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싱가폴의 '민족적(인종적) 계층' (ethnic stratification)을 밝혀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민족적 계층' 형성에 영향을 준 싱가폴사회의 과거중 특히 영국 식민지 지배의 직접적 결과를 검토한 뒤, 지난 30여년 동안 줄곧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PAP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실력사회' (meritocracy)와 '실용주의' 가 싱가폴의 민족 집단 간 사회경제적 차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간단히 전망해보고자 한다.

공식적인 센서스라든지 다른 자료들은 오늘날 다인종국가인 싱가폴에서 민족적(인종적) 경계를 따라서 즉, (1) 기타인들(비중국인, 비말레이인, 비인도인 노동자들 곧, 유럽계, 북미계, 일본계 등) — (2) 중국인들 — (3) 인도인들 — (4) 말레이인들 순으로 고용지위,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에 있어서 뚜렷한 계층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hiew, 1991). 달리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지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기타인들이 가장 상위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들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면서 중국인이 자리하고 있고, 바로 그 뒤에 놓여있는 집단이 인도인이고, 이들 중국인과 인도인 보다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며 가장 떨어져 있는 것이 말레이인이다(Chiew, 1991: 179). 그런데, 싱가폴에서 기타인은 그 수가 대단히 적어서(약 1.1%) 그들의 사회적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싱가폴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그 뒤를 인도인들이 바짝 따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말레이인들은 인도인들 보다 상당한 거리 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센서스가 있었던 1980년에 싱가폴에서 말레이인이 대학을 졸업한 수는 고작 679명에 그쳤지만, 중국인은 31,286명이 인도인은 3,518명이 그리고 기타인은 8,519명이 대학을 졸업하였다(Clammer, 1987: 221). 같은 해 71.7%의 말레이인은 싱가폴 달라로 월 400불(약 미화로 200불) 이하 밖에 벌지 못한 반면, 월 400불 이하를 벌은 비율이 중국인에서는 51.8%, 인도인에서는 59.8%, 그리고 기타인에서는 25.6%였다. 반면 월 1,000불 이상을 벌은 비율을 보면, 말레이인은 고작 2% 밖에 안되었지만, 중국인은 10.2%가, 인도인은 8.6%가, 그리고 기타인은 50%가 되었다. 1980년에 공무원중 가장 상위직인 제1급에 해당하는 숫자가 말레이인은 181명에 불과했지만, 중국인은 6,520명, 인도인은 698명, 기타인은 397명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에서 가장 하위직인 제4급에서는 말레이인들이 가장 많아서 6,281명이었고, 중국인은 5,765명, 인도인은 2,537명, 기타인은 795명이었다. 1967년에서 1980년 까지 제1급 공무원중 말레이인들은 2.4%에서 2.3%로 감소한 반면, 중국인은 73.5%에서 84.3%로 증가하였다. 반면 제4급 공무원중 말레이인은 같은 기간동안에 37.5%에서 40.9%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인은 오히려 41.9%에서 37.6%로 감소하였다(Jenkins and Kulkarni, 1984:

26-32).

싱가폴에서 교육 지표와 고용 지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 보강하고 있다(Clammer, 1987: 221). 즉, 0.2%의 말레이인 만이 사용자(고용주)이나, 반면에 중국인은 2.4%가 사용자이다. 말레이인의 4.7%가 전문직 및 기술직이나 중국인은 9%가 전문직, 기술직이며, 말레이인의 52.4%가 주로 공장라인의 일 같은 생산직인 반면 중국인은 38.8%가 생산직이다. 많은 중국인은 작은 가족기업을 갖고 있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하는 자영업자인 반면, 말레이인은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개가 서어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인도인 사회와 기타인들은 상위직 카테고리에 과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싱가폴에서는 '계급 경계' 보다는 '민족의 경계'를 따라서 '계층'이 생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자신들이 경제성장의 열매로 부터 제외되었다고 느끼는 집단 속에서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감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임금과 미숙련 직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가난이 집중된 '말레이인들'이며 또한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곧, 1990년 현재 약 30만명 가량의 15세 이상 문맹자들이다(Paul, 1992: 8).

그런데, 한 연구(Pang, 1976)에 의하면, 1973년까지는 경제성장이 전체로서 인종들 간에 소득 불평등의 확대를 갖다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연구(Paul, 1992)는 초기 산업화 과정 즉,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으나, 1979년 이후 상황은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지표로서 중시되는 '지니계수'(the Gini coefficient)가 싱가폴에서 1966년에는 0.46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0.42로 떨어졌고, 다시 1983년에는 0.49로 증가했다(Mizoguchi, 1990: 34). 이로써, 현재 문제는 어떤 면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것 같은 불평등이 점차 더 '제도화'되고 있고 스스로를 영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Clammer, 1987: 221).

앞의 제III장에서 이미 개괄하였듯이, '민족적 경계'를 따라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은 복합사회 싱가폴이 출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영국 식민지배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싱가폴에 이민온 민족집단들(중국인, 인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정부 및 유럽(영국)의 경제적 이해관심과 경제적으로 '한 편'(allies)이었다(Abraham, 1983: 27). 그 결과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았던 말레이 '인종'에 대한 식민정부의 부정적 인식 즉, "말레이인들은 경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는 여타 이민자들의 대 말레이인들에 대한 인식에까지 확산되었다. 이같은 '전이효과'(transfer effect)의 예는 오래 전에 말레이반도에 들어와서 정착한 중국 상인들이 공공연히 말레이 국가에 영국이 간섭할 것을 주장하였을 때 뚜렷이 드러났다. 주석 및 고무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과, 그리고 또한 이민온 집단들이

안정된 커뮤니티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말레이인들은 경제적으로 열세하다는 관념은 이제 일종의 '도덕적 열등성'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민집단의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처절한 가난과 생존욕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린데서도 잘 나타난다. 오히려 이들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룬 경제적 성공을 '도덕적 우월성'의 문제로서 그리고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실패는 일종의 '도덕적 열등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로부터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부(富)는 중국인의 산업, 검약 및 근대적 방식에 대한 적응력의 자연적 결과인데 반해서 말레이인들의 가난은 그들의 나태, 낭비 및 보수주의의 자연적 결과라고 강하게 믿게 되었다(Silcock, 1959: 183).

말레이인들에게 식민 통치는 그들의 식민지 이전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서 봉건적 계급관계의 강화를 갖다준 것 외에 동시에 식민정부와 이민사회 양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레이인들을 열등한 자리로 전락시켰다(Abraham, 1983: 28). 식민적 이데올로기가 말레이인들의 마음 속에 열등감을 생성시켰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밖에서부터 들어온 낯선 이민집단이 받아들인 것은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으로서 말레이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열등성을 더욱 믿도록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이 낯선 비말레이인들과의 관계에서 말레이인들의 '인종적' 열등감을 갖다 주었고, 이 경향은 현재까지도 말레이인들 속에서 대체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싱가폴의 이데올로기 체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1965년 이후 새롭게 전개된 싱가폴공화국시대를 지배한 대표적 이념은 경제제일주의, 생존 등과 밀접하게 결합된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김성건, 1994: 8).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예: Chan and Evers, 1972) '효율성' 및 '미래 지향'과 관련된 PAP의 실용주의 이념과 그리고 싱가폴의 사회적 가치로서 이미 자리를 굳힌 (인종 같은) 귀속성 보다는 실력에 따라 보상이 분배되는 '실력사회'(meritocracy) 이념 양자는 싱가폴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민족공동체주의'(communalism)를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실력사회와 실용주의는 단지 민족적 소수집단을 계속 뒤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추신콩(Chiew Seen Kong)의 다음과 같은 논지는 싱가폴의 미래가 '민족(인종)과 계급'이란 차원에서 어떻게 펼쳐질 지를 전망해보는데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복합사회에서 특정 민족집단의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보다 더 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실력사회와 실용주의는 지위 획득에 있어서 민족간 불평등을 유지할 것이다"(Chan and Ho eds., 1991: 38). 즉, 이 입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이데올로기와 실력주의 이념은 기득권자들(기득민족집단)에게는 유리하나 열세한 소수민족집단에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싱가폴의 '민족과 계급'의 관계를 전망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현 정부 당국이 싱가폴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관념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싱가폴에서 '인종 모델'이 사실상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급에 기초한 운동들이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들은 초기에 필연적으로 '인종적 라인'을 따라 분쇄될 가능성이 높다(Clammer, 1987: 227). 둘째, 한 사회의 경제가 노동집약적, 소규모 제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고도의 테크놀로지 산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제2의 산업혁명'을 이미 80년대 후반에 경험한 싱가폴에서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즉, 기득권층)과 달리 말레이인들이 전보다 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로써 중국인들과는 삶의 스타일과 가치체계가 매우 다른 이들 말레이인들이 만일 통합된다면 이는 장차 싱가폴의 인종관계에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Clammer, 1987: 228). 셋째, 경제적 불황이 종종 복합사회의 이질적 집단 간에 협력을 해침으로써 결국 '민족적 의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Safran, 1994: 63), 반면에 제3세계 식민지에서 민족적 의식의 확산이 경제적 쇠퇴를 초래하는 상황이 종종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할 때(Furnivall, 1941: 21),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함으로써 '계급'의 사회적 존재는 거의 은폐되고 정치적 측면에서 민족관계에 큰 무리가 없었던 싱가폴에서 앞으로 '경제적 쇠퇴'와 '민족적 의식' 양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사회변동의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종(민족)과 종교

싱가폴과 이웃인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두 나라가 모두 '다(多)종교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은 '세속국가'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공식종교로 갖고 있다(김성건, 1995: 20). 다른 말로, 싱가폴이 이웃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보다 가장 '세속화'된 국가이다. 민족과 종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이슬람교는 말레이반도에서 말레이민족에 기초한 국가를 정당화하였다. 반면에,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중국민족에 기초한 국가수립은 (이슬람교 같은) 어떤 정전(正典)을 갖는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계(父系) 자손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Wee, 1988). 이같은 전통의 영향아래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싱가폴 포함) 국가에 퍼져있는 중국인들 가운데는 종교와 민족이 한데 묶여 있는 다른 민족집단들의 경우들과는 달리 '단일의 종교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Martin, 1990: 136; Wee, 1990: 35). 그래서 싱가폴 처럼 중국인들이 인구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모든 종교에 대하여 중립을 취하는

세속국가를 지향하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다(Wee, 1990: 4).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이들 정치지도자들은 종교적인 것 보다는 비(非)종교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물질주의자들'이다.

다종교사회로서 싱가폴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물론 어떤 이들은 보다 자유로운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종교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들(예로서 회교도 같은 배타적 유일신앙자)에게는 일종의 '위협'으로서 간주되는 반면, 어떤 이들(예로서 중국종교, 불교 및 힌두교 같은 다신론적 종교 신봉자)에게는 '기회'로서 여겨진다. 이로써, 다른 종교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후자의 세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의 종교적 개종을 설명할 때 '밀어내는' 요인과 '끌어들이는' 요인 외에 '붙드는' 요인을 중시하는 입장(Wee, 1990: 35)을 따르면, 경계가 정해진 회중(congregations)을 갖는 유일신적 종교가 경계가 정해진 회중을 갖고 있지 않은 다신론적 종교 보다 그것의 신봉자들을 훨씬 더 가깝게 붙든다. 그러나 또한 다른 '비종교적'인 '붙드는' 요인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족'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 민족과 말레이 민족 사이의 비교는 말레이 민족은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중국 민족은 어떤 단일의 종교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정의되어 오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이 말레이인들 보다 훨씬 종교적 개종에 개방적이다. 이로써, 말레이 민족은 말레이인들을 이슬람교로 묶어주는 요인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일상 회화에서 'masuk Melayu'(말레이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지며, 반면에 이슬람교로부터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은 'keluar Melayu'(말레이인임을 그만두는 것)으로 일컬어진다(Wee, 1990: 36).

중국 민족과 비슷하게, 인도 민족도 어떤 특정 종교에 인도인들을 붙들지 않는다. 그래서 싱가폴에는 '힌두교도 인도인', '회교도 인도인', '기독교도 인도인' 등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써, 싱가폴의 인도인 사회는 민족/언어/종교의 관련이란 측면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Sinha, 1987; Clammer, 1980: 101). 싱가폴의 전 인구 중 6.5퍼센트를 차지하는 인도인들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국인 집단 보다 한층 더 '이질적'이다. 즉, 싱가폴에서 인도인 대다수는 타밀인이지만, 그외에도 많은 하위인도민족집단들(예: Gujeratis, Punjabis, Malayalees, Telegus, Parsis 등)이 존재하고 있다. 한 예로서, 팔시족(Parsis)은 조로아스터교도들이다. 따라서 Parsi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인디언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훨씬 더 작은 Parsi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Parsi가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떨어져나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바로 Parsi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싱가폴에서 하위인도민족 집단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특정 종교에 묶어주어 '붙드는' 요인이다.

그리하여, 싱가폴의 다양한 민족들 중에서 중국 민족이 종교적 소속이란 점에서 그 구성원들을 가장 느슨하게 붙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독립 이후 급속도의 사회변동을 갖다준 근대화를 배경으로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 교육을 받은 싱가폴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 속에서 '정령신앙'(animism)으로 부터 '정전'(正典)에 바탕을 둔 종교 쪽으로 종교적 지향이 일반적으로 바뀌게 된 흐름 속에서 어느 민족 집단 보다도 중국인들이 (주로 기독교 중 개신교로) 가장 많이 종교적 개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ee, 1990: 34).

한편, 다민족 복합사회 싱가폴에서 민족과 종교 간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해보면, 일반적으로 보아 도교와 불교는 중국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힌두교는 인도인들과, 이슬람교는 말레이인들과,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 현상학적 관점에서 싱가폴의 민족관계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Siddique, 1990)은 CMIO의 모델이 지배하는 싱가폴적 상황에서 어떤 이로 하여금 특정의 인종적 범주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부정하도록 하는데 '종교'의 중요성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같은 특정 민족집단과 특정 종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전체로서 싱가폴적 상황에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Clammer, 1980: 112). 구체적으로, 싱가폴에서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인들은 회교도가 되고, 타밀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힌두교도가 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종교'와 '언어' 그리고 '인종' 삼자가 싱가폴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사회적 동맹(연합)'이다. 다른 말로, 싱가폴에서 이들 세가지(언어, 민족, 종교적 소속)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를 갖는 일련의 복합적인 묶음이어서 종교언어적 상호작용을 연구할 때 대단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싱가폴의 최근 사회변동이 종교에 미친 영향을 밝힐 때 여러가지 현상들 중 힌두교의 '개혁' 움직임은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싱가폴에서 젊은 층을 주로 한 개혁지향적 힌두교도들은 싱가폴에서 오늘의 힌두교가 한마디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전통적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기 보다는 힌두교가 보다 더 '조직화'되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될 것을 바라고 있다(Sinha, 1987: 76-78). 이는 앞의 제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폴에서 근대화의 충격과 다인종주의 문화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경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쇠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싱가폴 동부에 있는 한 소승불교 사원에서 신자는 거의 대부분이 토착 '바바'(Baba) 중국인들로만 구성된 회중을 위하여 단 한명의 스리랑카 스님이 있지만, 전(全) 회중의 지향(orientation)은 매우 스리랑카에

맞추어져 있다. 주지하듯이, '바바'의 부계 선조는 말레이 반도에 단신으로 온 중국인 이민남성들로서 그들은 정착 이후 원주민(말레이인) 여성들과 결혼하였다. 그로부터 '바바'는 정신과 전통에 있어서는 중국적이지만, 외양과 생김새는 말레이인에 가깝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볼 때, 문화적으로 혼합적인 바바 중국인들이 스스로 중국이 아닌 스리랑카를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종교'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즉, 바바 중국인들로서는 그들이 스리랑카에 지향하는 것이 자신들은 정확하게 중국인은 아니라고 하는 민족감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실시된 한 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전통종교라 할 수 있는 도교는 신봉자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반면(1980년: 29.3%, 1988년: 13.4%),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신자수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 속에 특히 기독교(개신교)가 가장 크게 신장된 사실(1980년에서 1988년의 기간 중 8.4% 증가)을 알 수 있다(Wee, 1990: 34).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싱가폴적 상황에서 '민족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젊은 고학력의 중국인들에게 개신교가 특히 다른 종교들 보다 가장 인기를 얻으며 특수한 흡인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곧, 서구적 근대화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 같은 중국의 전통적 종교에 대해서는 급속히 관심을 잃어가는 이들 젊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작은 물리적 공간에 한데 모여있는 싱가폴의 제도화된 종교들 중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각기 말레이인들과 인도인들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결국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 대안이 될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중국인 젊은 층들에게 영어처럼 민족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까닭에, 싱가폴의 전체 크리스챤 중 58.9퍼센트는 이른바 '모태신앙'이 아닌 개종자들인데, 이들 개종자들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그런데, 싱가폴의 기독교(개신교)가 현재 추세대로 중류층과 중상층 집단을 중심으로 특히 다수민족인 중국인들 가운데서 계속 증가한다면 장차 이는 스리랑카나 레바논 같은 나라들 처럼 '계급갈등'의 쟁점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1980년대 후반 싱가폴의 종교적 부흥현상 중 문제적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한 사회과학자들의 결론을 통해 한 때 강하게 재기된 바 있다(Kuo, et al., 1988: 11; 김성건, 1995: 25-26).

이제 종교가 집단간 관계를 증진 또는 저해하는 영향을 갖는다는 일반적 사실(Herberg, 1960)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싱가폴의 상황에서 그 추종자들을 다양한 민족집단으로부터 불러모은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종교적 용광로'(religious melting pots)로서 기능하고 있는 종교는 두가지로서 하나는 기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교이다(Sharon M. Lee, 1988: 257-258).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싱가폴 같은 '중국적' 상황

(맥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이다. 그 이유는 이 두 종교의 경우 그 자체로서 특수한 구조적 특성과 아울러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되는 '유일신적' 주장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 싱가폴 당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종교의 부흥현상'(특히 젊은 세대 중국인 지식층들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근본주의적 개신교와 한편 소수집단인 말레이인과 남부 인도인 등을 주된 신도로 확보하고 있는 이슬람원리주의 등의 부상 등)을 국민통합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유무형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3. 소수집단의 문제: 싱가폴의 말레이 사회

중국인이 다수집단인 싱가폴의 제1소수집단은 말레이 커뮤니티이며, 제2소수집단은 인도인 사회인데, 소수집단의 문제를 밝히는 본 절에서는 이들 중 싱가폴에서 정치적 함의가 비교적 큰 전자 즉, 말레이사회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후자 즉, 인도인 사회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최근 인도인 사회 특히 그들 중 고학력의 젊은 층들 속에서 불만과 함께 이민이 증대하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Paul, 1992: 29). 이들은 싱가폴에서 만일 자신이 중국인이라면 사회적 이동이 더 좋게 이루어질 것이고, 동시에 영어와 만다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혜(우선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즉, 이들은 다름아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문화와 사회를 연구한 것들은 제법 이루어져있고, 그리고 싱가폴의 중국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축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까지 싱가폴의 말레이사회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희소해서 본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었던 세개의 자료가(Jenkins and Kulkarni, 1984; Clammer, 1985b; Li, 1989) 양적으로는 매우 적은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훌륭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기초하여 소수집단 말레이사회의 주요 측면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의 앞부분(제II장)에서 검토한 인종(민족) 문제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배경이 분석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어떤 민족의 존재를 고정되어 있거나 정태적인 실체가 아닌 '변화하는 것' '항상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따라서 '민족'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요인 속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할 때, 'ethnicity'의 핵심으로서 '문화적' 요소들과 '구조적' 요소들을 함께 강조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싱가폴에서 말레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제반 민족적 특성중 적지 않은 부분은 변화하는 외적 상황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사회에 커다란 구조적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서 영국의 '식민정책'과 그리고 보다 최근의 것으로서 PAP 정부가 근대화, 도시화를 급속도로 추구한 것 등을 중요한 외적 충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배가 말레이사회에 남긴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이글의 앞부분 여러 곳에서 상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최근의 근대화, 도시화에 대한 말레이 사회의 반응 및 적응 양상을 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대 특히 1965년 독립 이후 줄곧 싱가폴에서 중국인들과 말레이인들 사이에 도시화 및 근대화에 대한 반응 패턴이 달랐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곧, 중국인들은 거의 전폭적으로 이같은 사회변동을 수용한 데 반해서 말레이인들은 근대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적 사회유형과 직업유형 등을 지켰다. 그런데, 이같은 차이에 대하여 싱가폴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논평자들은 말레이인들이 근대화를 마음 내켜하지 않는 것은 곧 그들의 '후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레이 문화와 사회를 집중 연구한 클레머(Clammer, 1985b: 121-122)는 이런 식의 논평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비판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말레이인들의 근대화에 대한 저항 요인 같은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문화적 연속성과 탄력성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에 서게 되면, 결국 말레이인들이 근대화를 꺼려하는 것은 덧없는 근대 물질주의적 삶을 위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로써, 말레이 사회조직의 성격을 옳게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른 말로, 현재 싱가폴에서 말레이인 사회와 중국인 사회 사이에 격차가 현실로서 뚜렷이 존재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같은 사실의 의미를 평가하는데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1965년 독립이후 싱가폴의 도시화 발전 초기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근대경제 속에 말레이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에 대하여 탐성취(Tham Seong Chee, 1977: 59)같은 이는 (1) 문화적 연속성 (2) 기업가적 성공에 그들의 지위가 달렸던 의미있는 구조적 집단의 결여 그리고 (3) 기업가적 이데올로기의 결여의 세 요인의 결과라고 분석하였다(Clammer, 1985b: 122). 이에 더하여 싱가폴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추진된 것은 주로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 또는 서어비스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말레이인들의 직업유형과 또한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 양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구체적으로, 도시화와 근대화의 이중적 과정은 말레이인들의 전통적 직업들(잠수, 어망제조, 산호, 해산물 또는 진주 채취, 종려나뭇잎짜기, 마부와 마찻군 등)을 파괴했고 또한 그중 남게 된 직업들을 기계화시켰다. 동시에 근대화와 도시화의 세력은 말레이인들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특히 '가족'에 대해서 가장 큰 영

향이 가해졌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싱가폴의 모든 민족들 중 말레이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계획이 도입된 이래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현재 가장 가족 규모가 크고 또한 이들이 앞으로 가장 큰 가족 규모를 갖는 것을 바라고 있다(그 다음은 중국인이며 그 뒤는 인도인의 순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에는 말레이인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아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식들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 따위의 '전통적' 요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싱가폴에서 '바라는 가족규모'는 민족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서 여성(아내)의 교육, 남편의 교육 및 가구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들은 더 큰 규모의 가족을 희망한다. 그래서 말레이인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과 가족에 대한 말레이인들의 태도 사이에는 밀접한 기능적 관계 — 사실상 전자가 후자의 원인 —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lammer, 1985b: 123).

이런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PAP 정부가 실시한 현대적 주택정책에 의해서 전통적 커뮤니티가 가장 분열된 민족집단은 바로 말레이 커뮤니티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레이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반(半)농촌 스타일의 거주지로 부터 HDB가 세운 현대식 고층주거단지로 격리수용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말레이인들도 다른 민족집단의 경우와 비슷하게 정부가 지원하여 지은 HDB 아파트를 갖게 된 뒤에 실제로 전보다 더 행복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싱가폴에서 HDB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특히 모든 민족집단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갖게 된 뒤에 PAP정부에 대하여 전보다 한층 '동조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HDB 고층아파트에 살게된 말레이인들의 가족 스타일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족 규모가 줄어들었고, 조혼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혼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와 특히 종교적 의무와 가르침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었다. 한 연구 (Tham, 1979: 105)에 따르면, 말레이인들이 현대적 고층 아파트로 옮겨 살게 되면서 보여준 주요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점점 더 '성취'지향적 가치에 동화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성취라든가 직업에 있어서 성공 같은 것이 목표가치로서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를 뒷받침하는 합리화 또는 이데올로기적 지원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이런 가치가 말레이 커뮤니티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아직 구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레이 지도자들이 말레이인들은 경제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다른 민족집단들을 따라 잡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 것이 그같은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 왜냐하면, 말레이 지도자들은 검약, 근면 같은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들을 '근대적' 가치에 대한 보다 많은 집착을

요구하는데 사용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반 말레이인들로 하여금 상당할 정도의 '인지 불일치'(cognitive dissonance)를 갖다 주었기 때문이다(Clammer, 1985b: 124).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관유 전 수상은 싱가폴에서 모든 민족은 일자리와 다른 많은 것들을 획득하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무슬림교도들은 그들의 관습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다"(Zakaria, 1994: 120)고 밝혔다. 그렇지만 싱가폴에서 주로 말레이인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회교도 집단을 특별 취급하는 데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이는 동남아에서 지배집단은 모든 경우에 각기 국가에서 다수집단이지만, 싱가폴과 바로 이웃한 말레이시아에서 지배집단은 말레이인인 반면 중국인과 인도인은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와 소수민족 간 관계는 항상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Lee, 1988: 218).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싱가폴정부는 말레이인들을 취급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장(제II장)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싱가폴에서 말레이인들은 테드 거 교수의 분류(1993)에 의하면 인정된 국가 또는 제도화된 정치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집단 즉 '민족 공동체적 집단'(communal groups)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싱가폴에서 말레이인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개선시키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소수민족주의자'이며 또한 동시에 이차적으로 이슬람교의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 '정치화'된 소수민족으로서 '투쟁적 종파'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PAP 정부 당국은 싱가폴이 인종적으로 색깔을 가리지 않는 실력주의 사회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민족 공동체 특히 말레이인들이 일종의 '조합주의적 이익집단'으로서 기능하도록 북돋우고 있다(Brown, 1989: 59). 다른 말로, 싱가폴이 말레이 국가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싱가폴정부는 '민족적 쇼비니즘'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싱가폴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인 말레이인들의 이익(관심)을 '정당화',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반 수단을 강구하였다. 이것의 대표적 보기로서, 1980년에 PAP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슬림 자녀들을 위한 교육위원회'('Mendaki', 이 말은 말레이어로 '상승'을 뜻함)이다. 1980년이 되었을 때, 1960년대와 70년대에 싱가폴 말레이인들이 직면했던 제반 문제들 — 예로서 전통적 주거에서부터 고층 아파트로 이주하게 된 결과 초래된 혼란, 새롭게 조성된 HDB 단지 내에서 이슬람교도들의 경배 장소의 부족 등 — 은 거의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말레이 커뮤니티의 낙후된 교육만은 미해결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로서, 리관유 수상의 특별한 관심과 PAP의 지원 아래 1981년 지도적 말레이 조직들 약 2백개가 한데 모여 말레이인들이 전체 회교도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싱가폴에서 이들의 떨어진 교육수준

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Jenkins and Kulkarni, 1984: 30). 그로부터 1982년 5월에 제1차 멘다키('Mendaki') 전국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리관유 수상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후 1983년 멘다키 장학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멘다키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공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PAP정부는 테드 거 교수의 안목과도 비슷하게 '민족 갈등'의 발발에서 '집단 정체성'과 '불만'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말레이 커뮤니티 문제를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배정당인 PAP는 싱가폴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싱가폴 무슬림관계 위원회'(MUIS)를 정부의 주요 부처인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내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 이슬람교를 '비정치화'시키는 데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Jenkins and Kulkarni, 1984: 32). 즉, 1963년 싱가폴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갔을 때, 당시 싱가폴정부는 쿠알라룸푸르 즉,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싱가폴에 있는 말레이 커뮤니티까지도 관장하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싱가폴의 이슬람교 관련사항에 대한 최고 기구로서 MUIS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20년도 채 못되어 MUIS는 싱가폴 내 이슬람 법원의 관리는 물론 이슬람사원의 영적 지도자('imam')를 심사하는 기능 등으로 인해 거의 전권을 장악한 관료적 실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MUIS의 구성은 정부가 임명하는 의장('mufti'), 총무 및 5명의 위원과 여기에다 다양한 이슬람 종교집단들이 선출하는 적어도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로부터 오늘날 상당할 정도의 중앙집중적 통제를 할 수 있는 MUIS의 독립성에 대하여 말레이인들 중 특히 일부 지식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말레이 커뮤니티에 관한 제반 조치에 앞서 역사적으로 보아 PAP 정부는 사회공학적 실행으로서 말레이인들이 전통적으로 과도하게 자리잡았던 군대와 경찰 조직에서 충원정책을 바꿈으로써 말레이인들의 숫자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축소시켰다(Jenkins and Kulkarni, 1984: 27, 31). 주지하듯이, 과거 식민통치 시절에 말레이인들은 군대 하위직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했고, 마찬가지로 경찰도 1957년에만 하더라도 하급 직위중 7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폴이 떨어져나와 독립했을 때 이같은 상황은 뚜렷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로부터 일단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의무적 병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대에서 중국인의 숫자를 더 늘어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말레이계의 군 장교들은 덜 민감한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되었고, 매우 적은 수의 말레이 청년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요구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말레이 커뮤니티 속에서 반대운동을 일어나게 했다. 당시 말레이인들은 정부의 여러 부서중 유일하게 말레이인들이 지배적이었던 군대와 경

찰 조직이 다인종적 조직으로 변화된 반면 다른 부서들은 여전히 실력사회의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자신들이 차별된다고 느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1987년 리관유 당시 수상의 장남인 리셴룽(李顯龍)은 싱가폴 정부는 과거에 싱가폴 군대의 민감한 자리에 말레이인들을 앉게 하는데 주저하였다는 것을 밝혔고, 그와 함께 그 이유로서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이 만약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같은 무슬림 형제국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경우 그들의 제1차적 충성이 싱가폴공화국일지 아니면 그들의 무슬림 종교일지에 대하여 의심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Paul, 1992: 28).

한편, 이같은 갈등의 시기가 거의 자취를 감춘 현재의 시점에서 싱가폴의 말레이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정치적 태도를 개괄해보면, 말레이인들의 '정치적 동화'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는 일부 비판적 학자들의 주의를 묵살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이들 말레이인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이 다수로서 지배하는 싱가폴사회에서 자신을 '싱가폴인'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매우 적은 수만이 말레이시아 또는 심지어 인도네시아로 떠나가는 대안을 채택하고 있다(김성건, 1995: 8-9).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곧 오늘날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이 아무런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말레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엄연한 현실적 문제는 경제적 불이익, 교육기회의 상대적 부족, 주요한 정치적 영향의 결여, 중국인이 다수로서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적 지위 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싱가폴 말레이인들의 불만의 근원은 크게 보아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Clammer, 1985b: 126). 그런데 이같은 '경제적' 불만을 주로 해서 싱가폴의 말레이인들은 일종의 '소수 신드롬'(minority syndrome)을 갖고 있다고 말해진다(Jenkins and Kulkarni, 1984: 31). 즉, 1963년에서 1965년 까지 싱가폴이 말레이시아의 한 부분이었던 당시에 '다수'였던 체험을 한 싱가폴 말레이인들은 한때 PAP가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1965년 뒤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느낀 결과 갑자기 말레이시아로부터 떨어져나온 사실을 주목한다. 그래서 이들 말레이인들은 PAP 지도자들이 싱가폴에서 말레이인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싱가폴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말레이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 좋은 직업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Jenkins and Kulkrani, 1984: 31). 다른 말로, "말레이인들은 그들의 '소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만 하며 동시에 싱가폴 국민들의 주류(主流)에 속해야 할 것이다. 현 체제는 전체로서 한 커뮤니티에게는 공정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개인들에겐 공정하다"는 식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말레이인들은 체제가 그들에게 반드시

이익을 갖다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싱가폴의 말레인들이 갖게 되는 딜레마는 만일 체제에 참여한다면 이는 자신이 PAP의 한부분이 되는 것 또는 집권당과 관계되는 행위와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있다. 여기서 일부 '성공적'인 말레이인들은 힘도 없고 분열된 반대집단 뒤에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현 체제 내에서 일하는 것이 말레이 커뮤니티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체제참여파 말레이 지도층인사들은 사실상 거의가 그들이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즉, 말레이인의 이해관심을 위해 활동한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PAP의 최고위층 지도부로부터 외면당하게 됨을 발견한다. 그 결과, 남아있는 말레이계 국회의원들은 말레이 커뮤니티로부터 'PAP 정부의 도구'로 취급당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말레이인 의원들이 예전의 의원들보다 점점 더 젊고 잘 교육받았으며 따라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이들 실력있는 의원들은 이제는 말레이인들이 스스로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강변한다. 즉, 그들은 싱가폴이 실력주의에 기초한 열린 사해동포적 사회이며 따라서 회교도 말레이인들은 이슬람의 힘과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사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체제옹호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Jenkins and Kulkarni, 1984: 32). 이로써, 싱가폴의 다른 민족집단들처럼, 말레이 커뮤니티 역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점은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충성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국가에 충성하는 것 모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Clammer, 1985b: 126).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말레이인들에 대한 싱가폴 정부의 비분리정책이 낳은 '복합적' 결과(현재로선 대체로 괜찮은 결과를 초래하여 말레이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동화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이들의 불만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를 앞부분에서 인용한 윌리암 사프란의 다섯가지 요인(Safran, 1994)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정도 의 요인과 관련해 볼 때, 싱가폴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일단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뒤로 처진 말레이인들에게도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이들이 독립 당시 보다 현저하게 정치적으로 체제동조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수민족 공동체의 뿌리와 통합 요인과 관련해 볼 때, 싱가폴 말레이 커뮤니티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독립하였던 집단으로서 클레머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현재 싱가폴에 있는 여러 민족집단중 가장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민족의식이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존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소수민족 엘리트의 성격과 속성 요인과 관련해서 볼 때, 싱가폴 말레이 커뮤니티는 과거 식민지 유산으로서 노예무역을 한 부유한 아랍계 상인들이 식민

정부와 말레이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전통이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같은 말레이 엘리트들의 '친체제적' 성격이 싱가폴정부 당국의 비분리정책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수민족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참여정도 요인과 관해 볼 때, 말레이인들 역시 근대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 민족집단들의 경우처럼 자신들의 '민족적 경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늘어났고, 최근에는 인도인들중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는 이슬람신자들의 '말레이화' 등으로 인해 말레이문화에는 여전히 '생기'가 존재하고 있다. 말레이 커뮤니티에서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측면인 '문화적' 요소가 생기를 더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 집단이 경제적 불만이 어느 한계를 넘을 경우 그들의 의식이 정치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 국가정책 수립자들의 성실성(진실성)의 요인과 관련해볼 때, 싱가폴은 최근 베를린의 국제청렴기구(Transparancy International)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국가청렴도에서 조사 대상 41개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아시아국가로서는 싱가폴 외에는 어느 나라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한국일보〉, 1995년 7월 13일자). 이로써, 이른바 '사회적 오염에 대한 합의'(김성건, 1995: 14-16)가 싱가폴에서 독립 이후 강하게 형성된데는 무엇보다도 리관유를 중심으로한 PAP 지도자들의 '성실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국가정책수립자들의 높은 도덕적 성실성이 싱가폴의 제1 소수집단인 말레이인들의 잠재적 갈등을 억누르는데도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한동안 싱가폴 국립대학 사회학과 교수로서 영국인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싱가폴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클레머 교수는 싱가폴의 인종(민족)문제에 대해서도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Clammer, 1982; 1985a; 1985b; 1987; 1989). 그런데, 그는 초기 논문(1982)에서는 싱가폴에서 민족정책은 성공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로부터 이 사회에서 공공연한 민족갈등의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낙관하였다. 그런데 이후 논문(1987)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비판적'으로 싱가폴의 인종(민족)문제를 취급하였다. 즉, 그는 싱가폴의 구성기(1965년부터 약 25년간)가 지난 현재 사회구조와 민족유형이 '경직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민족 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싱가폴에서 제2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후 말레이인들이 더 처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말레이인들의 도전이 싱가폴의 인종(민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결론적으로 싱가폴에서 '다인종주의'와 함께 '사회정의'가 함께 가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 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1989)에서 그의 입장은 전보다 한층 비판적이어서 싱가폴에서 다인종주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싱가폴의 사회조직은 대단히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싱가폴에서 현재의 안정된 민족관계가 장차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가지 이유로서 첫째, PAP의 거의 완전한 정치적 패권과 둘째, 민족집단들 사이에 '편견'이 증대하고 있는 점과 또한 '인종'과 '계급'의 수렴현상을 지적하였다.

클레머 교수와는 연구관심은 다르지만 역시 싱가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현재 홍콩 링난(Lingnan)대학 사회학교수인 윌리암 리(William Lee)는 '종속발전론'의 시각 속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싱가폴의 산업화전략이 성공한 것은 국내 기업가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 및 저발전, 그리고 소수민족과 핸디캡을 가진 불리한 집단들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었다"(Lee, 1995: 10)고 결론맺었다. 이와 비슷한 비판적 입장에서, 한때 싱가폴에서 살았고 또한 교육받은 바 있으며 현재 호주 맥퀘리(Macquarie) 대학에 있는 정치학자 에릭 폴(Erik Paul)교수는 싱가폴정부가 민족을 사회문화적 분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싱가폴의 권위주의적 문화와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aul, 1992: 24). 아울러, 그는 싱가폴에서 '정체성'(identity)에 강조를 두는 정책은 다른 민족집단에 대한 중국인의 문화적 우월감을 창조한다고 보면서, 싱가폴의 인종분리정책은 자민족중심주의와 문화적 쇼비니즘을 증대시키는 반면 '정치적 민주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였다(Paul, 1992: 30).

한편, 테드 거교수는 민족공동체적인 정치적 행위의 국가적 상황에 관해 분석하면서 수단과 레바논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다민족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민주화는 (긍정적 측면보다) 문제적 결과를 더 갖고 있다"(Gurr, 1993: 176-177)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3세계 독재국이 각 민족집단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갑자기 '민주화'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는 종종 '민족공동체주의적 행동주의'(communal activism)가 되기 쉽다. 이같은 그의 주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설은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비폭력적인 민족공동체적 저항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테드 거 교수는 "민주화를 하고 있는 독재국에서는, 대조적으로, 동원의 기회는 올라가지만 이것은 잠재적 비용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가장 있을 법한 결과는 적응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전쟁과 강제적 통치의 재도입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들 속에서 민주화는 폭력적인 민족공동체적 저항과 반란을 위한 동원을 촉진하는 것을 갖다주기 십상이다"(Gurr, 1993: 177)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테드 거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 그리고 '제도적 변화'이 세가지가 민족공동체적 갈등이 저항 또는 반란의 형태 중 어느 하나로 나타나도록 결정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1993년 싱가폴의 당시 외무부장관인 빌라하리 카우지칸(B. Kausikan)이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동서양의 견해 차를 주제로 다룬 논문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상황에서 인종간 긴장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Kausikan, 1993: 251)고 주장하면서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인권' 및 '민주주의'와 구별한 것이다. 그는 예로서 서양이 티벳인들에게 장차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독립의 꿈을 북돋우어 주는 것에 의해 그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그들을 더 잘 돕는 것은 '기존 체제 내에서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결론맺었다.

그런데 이같은 카우지칸 장관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장은 싱가폴이 조합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관료적 국가이며 또한 사회 전반에 검열과 감시체제가 잘 발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싱가폴의 한 정치적 인사에게만 국한된 개인적인 관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현 PAP 정치 지도자들의 인종(민족)문제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싱가폴의 U.N. 상임대표이며 저명한 정치학자인 찬헹치(Chan Heng Chee, 1978)는 '인사이더'의 입장에서 싱가폴의 민주화 전망과 관련하여 싱가폴인들은 국가의 작은 규모가 그 자체에게 효과적인 통제를 갖다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권위주의적 모델을 수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싱가폴의 민족문제와 정치적 민주화 등에 대한 이상의 엇갈리는 논의와 전망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자는 다민족의 권위주의적 국가와 정치적 민주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테드 거 교수의 비교정치사회학적 관점이 각 민족 집단의 특수한 이해관심을 '제도화'하는데는 제법 적극적인 반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오늘의 싱가폴에도 상당 부분 잘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독립 이래 싱가폴의 '생존'을 위해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줄곧 사회공학적 차원의 다양한 민족(인종)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해온 PAP 내부에는 외부의 일부 비판자들(주로 백인 사회과학자들)의 지적과는 달리 사회과학적으로 잘 훈련된 애국적(?)인 싱크탱크(Think-Tank)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 몫을 발휘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이런 의미에서 싱가폴을 연구하면서 줄곧 느끼게 된 것은, 싱가폴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관료들과 관련 학자들 간에 협동이 대체로 '생산적'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종 및 민족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정착한데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의 하나로서 지배 이

데올로기 및 사회적 가치 중에 도구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와 사람을 귀속성보다는 능력에 의해서 대우하는 '실력사회' 이념이 정착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싱가폴의 인종 및 민족 문제는 독립 이후 현재까지는 커다란 민족간 마찰, 분쟁 또는 갈등없이 지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연구자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국가기관과 성실한 공무원들이 주도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이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즉, PAP가 주도한 경제성장이 한편으로는 민족간 계층화현상을 심화시킨 점도 없지 않으나,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측면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HDB의 주택 공급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경제성장의 혜택은 전 민족집단에 돌아갔고, 그로부터 제1 소수집단인 말레이 커뮤니티 마저도 상당할 정도로 '정치적 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지만, 만일 나타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는 경제사정이 돌연 악화되는 상황에다 공무원, 정치가, 기업가들의 부정부패가 확산되고 외부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 이슬람국가들과 싱가폴 정부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는 조건이 더해져서 불만이 가장 고조되는 말레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싱가폴이 작은 도시국가로서 국민들을 모든 면에서 통제하기가 용이한 물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다인종주의'로 대표되는 '싱가폴 실험'을 다른 다인종적 국가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동양적 의미에서 '좋은 정부'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PAP 지도자들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작업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건

1995 "싱가폴의 종교와 문화",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제4권 제4호.

유인선

1993 "싱가포르 150년사(1819-1969),"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36권 제2호.

Abraham, Collin E.R.

1983 "Racial and Ethnic Manipulation in Colonial Malay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6, No. 1: 18-32.

Alba, Richard

1992 "Ethnicity," in Edgar F. Borgatta and Marie L. Borgatta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Vol. 2. New York: Macmillan.

Anthias, Floya

1990 "Connecting Race and Ethnic Phenomena," *Sociology*. 26: 421-438.

Baliba, E.

1991 "Is There a 'Neo-Racism' ?" in E. Balibar and I. Wallerstein (eds),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Barker, M.

1981 *The New Racism*. London: Junction Books.

Benjamin, Geoffrey

1976 "The Cultural Logic of Singapore' s 'Multiracialism' ," in Riaz Hassan (ed) *Singapore: Society in Trans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The Unseen Presence: A Theory of the Nation-State and its Mystifications," Working Papers No. 91,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rah, Avtar

1994 "Time, Place, and Others: Discourses of Race, Nation, and Ethnicity," *Sociology*. Vol. 28, No. 3: 805-813.

Brown, David

1989 "The State of Ethnicity and the Ethnicity of the State: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12, No. 1, 47-62.

Buchanan, Ian

1972 *Singapore in Southeast Asia*. London: G. Bell.

Cashmore, Ellis

1984 "Ethnicity," in E. Ellis Cashmore (ed) *Dictionary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Chan Heng Chee

1971 *Singapore: The Politics of Survival, 1965-1967*.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The Dynamics of One Party Dominance: The PAP at the Grassroots*.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Language and Culture in a Multi-Ethnic Society: A Singapore Strategy." Paper presented at the Malaysian Social Science Association (MSS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rnization and National Cultural Identity, 10-12 January, Kuala Lumpur.

Chan Heng Chee and Hans-Dieter Evers

1972 "National Identity and Nation Building in Southeast Asia," Working Paper No. 6,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han Kwok Bun and Ho Kong Chong (eds)

1991 *Explorations in Asian Sociology*. Singapore: Chopmen Publishers.

Chen, Peter S.J.

1974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Singapore,"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2: 119-130.

1977 "Asian Values and Modernization: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Seah Chee-Meow (ed), *Asian Values & Modernization*.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Chew, Ernest C.T.

1991 "The Singaporean National Identity: Its Historical Evolution and Emergence," in Ernest C.T. Chew and Edwin Lee (eds) *A History of Singap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ew Sock Foon and John A. MacDougall

1977 *Forever Plural: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Inter-Communal Marriage in Singapore Athens*, Ohio: Papers in International Studies, Southeast Asian Series No. 45.

Chiew Seen Kong

1991 "Ethnic Stratification," in Stella R. Quah et al .(eds) *Social Class in Singapore*.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Chua Beng-Huat and Eddie C.Y. Kuo

1991 "The Making of a New Nation: Cultural Construc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Singapore," Working Papers No. 104,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lammer, John R.

1980 "Religion and Language in Singapore," in Evangelos A. Afendras and Eddie C.Y. Kuo (eds), *Language and Society in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2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ity: the Culture of Ethnicity in Singapo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5, No. 2, 127-139.

1985a "Ethnicity and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Differences in Plural Societies: A Perspective from Singapore,"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XX, 3-4: 141-155.

1985b "Malay Society in Singapore: Problems of a Minority Group," in *Singapore: Ideology, Society, Culture*. Singapore: Chopmen Publishers.

1987 "Singapore," in Jay A. Sigler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Race and Race Relation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Inc.

1989 "National Ideology and the Question of Race: Reflections on the Dynamics of Ethnicity in Contemporary Singapore," in Cedric H.C. Pan (ed) *Thinking About Democracy*. Singapore: The Political Associ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eutsch, Karl W.

1966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Fox, Richard

1985 *Lions of the Punjab: Culture in the Making*.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urnivall, J.S.

1941 *Progress and Welfare in Southeast Asia*.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a Plural Economy*. New York: Macmillan.

Geertz, Clifford

1967 "The Integrative Revolution," in Clifford Geertz (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New York: The Free Press.

Gurr, Ted Robert

1993 "Why Minorities Rebel: A Global Analysis of Communal Mobilization and Conflict since 1945,"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4, No. 2, 161-201.

Hassan, Riaz

1974 *Interethnic Marriage in Singapore: A Study in Interethnic Rela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Herberg, W.

1960 *Protestant-Catholic-Jew.* Garden City, NY: Anchor.

Jenkins, David and V.G. Kulkarni

1984 "Joining the Mainstrea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28, 26-32.

Kausikan, Bilahari

1993 "East and Southeast Asia and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16, 241-261.

Kuo, Eddie C.Y., Jon S.T. Quah, and Tong Chee Kiong

1988 *Religion and Religious Revivalism in Singapore.* Singapore: Report Prepared for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oment.

Kurien, Prema

1994 "Colonialism and Ethnogenesis: A Study of Kerala, India," *Theory and Society.* 23: 385-417.

Lee, E.

1991 *The British as Rulers.*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Lee, Sharon M.

1988 "Intermarriage and Ethnic Relations in Singapo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255-265.

1991 "Social Class in Singapore: An Overview," in Stella R. Quah et al. (eds), *Social Class in Singapore.*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Lee, William K.M.

1995 "Foreign Investment, Industri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Singapo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anadian Anthropological and Sociological Meeting, University of Montreal, Canada (June 4-7).

Lee Yong Leng

1983 "Ethnic Differences and the State-Minority Relationship in Southeast Asia,"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6, No. 2, 213-220.

Li, Tania

1989 *Malays in Singapore: Culture, Economy and Ideolog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Lian Kwen Fee

1992 "In Search of a History of Singapore?"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0, No. 1: 93-106.

Loh, Philip

1969 *The Malay States, 1877-1895: Political Change and Social Poli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Martin, David

1990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 Blackwell.

Mason, David

1994 "On the Dangers of Disconnecting Race and Racism," *Sociology*. Vol. 28, No. 4: 845-858.

Miles, Robert

1982 *Racism*. London: Routledg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Singapore

1993 *Singapore 1993*. Singapore: Publicity Division.

Mizoguchi, T.

1990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Macro and Micro Aspects," *Asian Development Review*. 8(1): 18-43.

Ooi Giok Ling, Sharon Siddique & Soh Kay Cheong

1993 *The Management of Ethnic Relations in Public Housing Estate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Park, Robert E.

1950 *Race and Culture*. Glencoe, Ill.: Free Press.

Pang Eng Fong

1976 "Growth, Equity and Race," in Riaz Hassan (ed), *Singapore: Society in Transition*.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Patterson, Orlando

1975 "Context and Choice in Ethnic Allegiance," in Nathan Glazer and Daniel Moynihan (eds), *Ethnicity, Theory and Experien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aul, Erik C.

1992 "Obstacles to Democratization in Singapore," Working Papers 78, Centre of Southeast Asian Studies, Monash University, Australia.

Quah, Jon S.T.

1990 "National Values and Nation-Building: Defining the Problem," in Jon S.T. Quah (ed) *In Search of Singapore's National Values*. Singapore: Institute of Policy Studies, Time Academic Press.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Safran, William.

1994 "Non-separatist Policies Regarding Ethnic Minorities: Positive Approaches and Ambiguous Consequenc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5, No. 1, 61-80.

Sandhu, K.S.

1969 "Some Aspects of Indian Settlement in Singapore 1819-1969,"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10: 193-201.

Shils, Edward.

1957 "Primordial, Personal, Sacred and Civil 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8: 130-145.

Siddique, Sharon

1990 "The Phenomenology of Ethnicity: A Singapore Case-Study," *SOJOURN*. Vol. 5, No. 1: 35-62.

Silcock, T.H.

1959 *The Commonwealth Economy in Southeast As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Sinha, Vineeta

1987 "Hinduism in Singapore: A Soci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 M.S.S. Thesis,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mith, Anthony D.

1981 *The Ethnic Reviv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auth, G.

1992 "Slave Trade, Multiculturalism and Islam in Colonial Singapore,"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0, No. 1.

Tham Seong Chee

1979 "Social Change and the Malay Family," in Eddie C.Y. Kuo and Aline K. Wong (eds), *The Contemporary Family in Singapore*. Singapore.

The Mirror

October 9, 1965.

The Straits Times

August 13, 1965; July 27, 1966; July 30, 1989.

Thio, Eunice

1991 "The Syonan Years, 1942-1945," in Ernest C.T. Chew and E. Lee (eds) *A History of Singap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urnbull, C.M.

1989 *A History of Singapore 1819-1988* (2nd editio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van den Berghe, P.L.

1984 "Race: perspective two," in E. Ellis Cashmore (ed), *Dictionary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Wee, Vivienne

1988 "What Does 'Chinese' Mean?: An Exploratory Essay," Working Papers No. 90, Department of Soc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990 "Secular State, Multi-Religious Society: The Patterning of Religion in Singapore,"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Zakaria, Fareed

1994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109-126.

Problems of Race and Ethnicity in Singapore

Sung-Gun Kim

This paper deals with the ethnic situation in Singapore. In all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e Republic of Singapore is the only country where the ethnic Chinese are a cultural and racial majority. This study is closely linked with my other study ("Religion and Culture in Singapore")which I have already finished in 1995. Unlike many countries which have seen 'race relations' as something to be played down or hopefully dissolved altogether, Singapore has chosen the path of quite deliberately and consciously stressing ethnicity as the main means of

social classification, a policy that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cultural life, educational planning and the entire organization of society. In this respect, one of the most pervasive features of post-independence Singaporean multiculturalism has been the tendency to de-emphasize the heterogeneous character of each race in favour of a more simplified, multiracial CMIO (Chinese, Malay, Indian, and Others) quadratomy.

At present many data show that in Singapore there is a strong evidence of ethnic stratification in terms of employment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al statu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ity and religion, Malay ethnicity is a hold factor binding Malays to Islam. Of all the different ethnicities in Singapore, Chinese ethnicity is the one which holds its members most loosely in terms of religious affiliation. Of all the races in Singapore, the Malays with a minority syndrome are the most disaffected. But the sources of Malay dissatisfaction seem to be largely economic, rather than political. There are some evidence suggesting a high degree of political assimilation among the Malays mainly as a result of the PAP' s far reaching programme of social engineering. In brief, national ideology of multiracialism and the booming economy under the guidance of the authoritarian and sincere ruling elites have so far acted togeth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inequalities on race relations in Singapore.

김성건,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주소: 360-742 충북 청주시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Tel.: 0431-61-8362(O), 042-522-6339(H), Fax 0431-62-8822